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

# 한국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활용하여 －

2012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 준 모



# 국 문 초 록

## 한국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인식 유형 연구 - Q 방법론을 활용하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강 준 모

본 연구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제도 설계를 계획해야 한다는 North(2000a)의 연구에 입각하여, 한국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인식유형의 제도적 설계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운영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22개 단체에 소속된 29명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단체들의 운영현황과 제도설계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자들이 인식하는 지역통화제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인식 유형(‘이웃공동체 지향형’, ‘대안공동체 지향형’, ‘생활공동체 지향형’, ‘생태공동체 지향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인 ‘이웃공동체 지향형’의 운영자들은 현재 주류경제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붕괴되는 지역 공동체의 부활과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이끌어내는 제도로써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대안공동체 지향형’의 운영자들은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도로써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세 번째 ‘생활공동체 지향형’은 주류적 경제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개인의

역량개발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써 인식하는 것이다. 네 번째 ‘생태 공동체 지향형’은 지역통화제도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써 생태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써 인식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요인 별 제도설계의 유의미한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아직 국내에 현존하는 지역통화단체들이 제도적으로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조사 당시 단체들의 제도설계요인이 조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주체의 설립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인식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운영주체의 특성이 잠재적인 변수로써 작용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생태복지, 지역통화, 지역화폐, 공동체화폐, Q 방법론  
**학 번** : 2009-22841

# 목 차

제 1 장 서론.....	6
제 1 절 문제 제기.....	6
제 2 절 연구 목적.....	9
제 3 절 연구 문제.....	10
제 2 장 이론적 고찰.....	11
제 1 절 지역통화제도의 이해.....	11
1.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개념.....	11
2. 지역통화제도의 문제의식.....	12
3. 지역통화제도의 역사.....	13
4. 지역통화제도의 종류.....	14
5. 지역통화제도 운용원리.....	15
6. 지역통화제도의 특성과 효과.....	16
7. 대안적 복지체계로의 가능성.....	17
8. 우리나라 지역통화제도 현황.....	18
제 2 절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설계방식.....	21
1.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관점.....	21
2. 지역통화제도의 설립 동기.....	24
3. 지역통화제도의 설계 유형.....	26
제 3 장 연구 방법론.....	30
제 1 절 왜 Q 방법론인가?.....	30
제 2 절 Q 방법론.....	32
제 3 절 Q 방법론의 과정.....	33
1. Q 모집단(Q Population)의 구성.....	33
2. Q 표본(Q Sample)의 선택.....	36
3. P 표본(P Sample)의 선정.....	40
4. Q 표본의 분류(Q Sorting).....	41
5. 자료 처리 및 분석.....	43

<b>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b>	<b>44</b>
제 1 절 지역통화제도 인식 유형	44
1. 네 가지 유형의 공통적 특성	46
2. 각 유형의 특성	47
제 2 절 국내 지역통화 단체들의 제도 설계적 특성	63
제 3 절 지역통화제도 인식 유형별 특성	67
1. 유형1 - ‘이웃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67
2. 유형2 - ‘대안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68
3. 유형3 - ‘생활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69
4. 유형4 - ‘생태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70
제 4 절 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73
1. 공공정책으로써의 시사점	73
2. 지역경제 발전 관점 vs. 생태적지역발전 관점	74
3. ‘운영 주체의 특성’의 설명변수로써의 가능성	75
4. 대안복지제도 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	78
<b>제 5 장 결론</b>	<b>80</b>
제 1 절 요약	80
제 2 절 연구의 함의	79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81
1. 연구의 한계점	82
2. 후속연구 제언	83
<b>참고문헌</b>	<b>85</b>
<b>Abstract</b>	<b>91</b>

## 표 목차

<표 2-1> 우리나라 지역통화제도 현황 .....	19
<표 2-2> Seyfang(2001)의 ‘지역경제발전’ vs. ‘생태적지역발전’관점 ..	22
<표 2-3> North(2000a)의 지역통화제도 설립동기 .....	24
<표 2-4> North(2000a)지역통화제도 설계 요인 .....	26
<표 3-1> Q 방법론의 진행 과정 .....	34
<표 3-2> Q 표본(Q 진술문) .....	38
<표 3-3> P 표본 목록.....	40
<표 4-1> 인식유형의 요인적재치와 총변량 비율 .....	45
<표 4-2> P표본의 각 유형별 요인 적재치 .....	45
<표 4-3> 네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진술문 .....	47
<표 4-4> 유형1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48
<표 4-5> 유형1과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51
<표 4-6> 유형2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52
<표 4-7> 유형2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55
<표 4-8> 유형3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56
<표 4-9> 유형3과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58
<표 4-10> 유형4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	60
<표 4-11> 유형4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 ..	62
<표 4-12> 각 유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71

## 그림 목차

<그림 3-1> Q 카드 분류판 .....	43
-------------------------	----



# 제1장 서론

## 제 1 절 문제제기

마이클 샌델(2012)은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되는 오늘날의 사회를 두고 과거 ‘시장경제를 가진(having a market economy)’ 시대에서 ‘시장사회를 이룬(being a market society)’ 시대로의 변화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회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가 훼손되어간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시장이 우리 경제의 영역을 넘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상부상조 기능을 통한 공동체적 노력’이라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가치(김상균 외, 2010)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Fitzpatrick & Caldwell(2001)은 오늘날의 사회복지체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 세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은 생산성의 논리에 귀속되어있어 물질적 생산만이 사회의 ‘안녕(well-being)’을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생산주의가 필요로움을 줄 것이라는 대한 굳은 믿음은 되레 우리 사회를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사회(risk society)<sup>1</sup>로 만들었다.

둘째,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통해서만 물질적 안정과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현재의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시장에서의 임금 노동만 노동으로 보는 시각은 임금노동 이외에 가족 내 돌봄 노동과 같이 소득으로 측정이 되지 않은 여타의 노동들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는다(Seyfang, 2000). 전 세계적으로 지식 경제 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근로자 분화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지식 산업 종사자들은 고소득이 담보되는 한편, 주변부 산업 종사자들은 빈곤을 피할

---

<sup>1</sup> Beck(1992)은 제도적으로 조건화된 개인들의 불안에 의해 연결된 하나의 유동적이고 불안한 사회, 즉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였다(홍찬숙, 2009).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Gorz, 1989; Rifkin, 1995; T. Fitzpatrick & C. Caldwell, 2001 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협소한 개념의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인간의 안녕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는 오히려 노동유연화 정책에 편승하여 사람들을 편협적인 ‘노동’시장으로 몰아내는 워크페어(retributive workfare) 정책을 펴고 있다(Fitzpatrick, 2001).

셋째, 현재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 과정에서 대중들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래 복지는 시민들이 연대하여 스스로 창출해낸 권리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전문가나 관료들에게 수혜 받는 ‘고객 (clientalisation)’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체계는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보호체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시민의 역량을 확대(Hirst, 1994)하고, 정책이반과정을 분권화(Ellison, 1999) 하며, 협동조합과 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모색(Offe, 1996)해야 할 것이다(Fitzpatrick, 2001 에서 재인용). 이러한 권력 분권화를 통해 시민들이 비로서 ‘복지수혜자(recipient)’가 아니라 ‘복지생산자(producers)’, 즉 진정한 ‘복지 시민(welfare citizen)’으로 거듭날 것이다(Barry & Proops, 2000).

그 동안의 전통적 복지체계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사회보험을 통한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보완하는 구조로 시장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김은하 & 박경하, 2011). 하지만 노령인구의 증가, 청년실업의 만성화, 가족구조 변화, 비정규직 확산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여 현대의 복지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생겨나고 있다(Fitzpatrick & Caldwell, 2001; C. C. Williams,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 중 하나인 지역통화제도를 대안적 복지체계로써 살펴볼 것이다.

지역통화제도는 국가통화가 아니라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사용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통화제도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하여 실업자 및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의 활성화, 지역사회 상호부조 증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의 재편 등의 역할을 한다고 평가 받는다(Cahn, 1997; Pacione, 1997; Thorne, 1996; C. Williams, 1997; 천경희, 2006). 지역통화제도의 역할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자원 순환형 경제를 만듦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황폐화된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를 회복하여 복지와 같은 비시장적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마코토, 2006).

이러한 점에서 지역통화제도는 대안적 복지체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역통화제도는 단절된 공동체를 부활시켜, 삶의 풍요로움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는 갈수록 확산되는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발현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가치를 부활시켜 임금노동을 통해서만 대접받는 사회로부터의 탈피를 꿈꾼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지역 주민들의 함께 고민하여 자기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지역통화는 변화하는 사회정세와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붕괴된 시민의 자조 상호기능을 되살림으로써 지역경제를 부활시키고 시민의 자기 책임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게 돕는 정책이다(박상현, 2004).

하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천여 개의 지역통화제도가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써의 확산은 미흡하였다. North(2010)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천여 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화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지역통화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이로 인한 '고착효과(lock in)'로

설명한다. 즉, 지금까지는 지역통화제도가 과거 몇몇 성공 모델의 경로만을 고집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궁극적으로 제도 자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가두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통화제도는 각 지역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역통화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통화제도를 설립하기 이전에 무엇을 성취하려는 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고 지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설계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orth, 2000a, 2012).

## 제 2 절 연구목적

결국 한국에서 지역통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자들이 각 단체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통화라는 제도에 대해서 운영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운영자들이 지역통화제도의 설립목적,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이에 맞는 조직적, 정책적 제언 즉, 세부적인 제도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목적이 파악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설계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North, 2000a).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지역통화제도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인식유형의 제도적 설계의 특성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지역통화를 제도화시키고 확산시키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을 수 있다. 즉,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스스로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봄으로 그

설립목적과 설계의 적절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지역통화네트워크에 따르면 올해 전국지역통화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전국에 모든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전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차이를 이해한다면 각 단체들 간에 교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제 3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한국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유형은 각각 어떠한 제도적 설계의 특성을 나타내는가?

## 제 2 장 이론적 고찰

이 장에서는 먼저 지역통화제도의 개념, 역사, 원리, 현황 등을 설명한다. 더 나아가 2 절에서는 연구 분석의 틀이 되는 지역통화제도에 관한 관점과 설립 동기, 제도설계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 제 1 절 지역통화제도의 이해

#### 1.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개념

지역통화제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일상에서 경제적 가치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화폐, 즉 원, 달러, 유로, 엔 등과 대비되는 단어로 지역통화(local currency), 보완통화(complimentary currency), 그린달러(green dollar), 에코 머니(eco-money), 사회적 돈(social currency), 풀뿌리 화폐(grass root currenc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화폐를 일컫는다(Blanc, 2011; North, 2012; 요시히로 & 루이, 2002; 천경희, 2006). 그 동안 학계에서는 ‘community currency’, ‘local currency’, ‘complimentary currency’ 등 문맥에 맞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천경희, 2006). 기본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없지만, 이 중 ‘지역통화(community currency)’는 현존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meta-name)이다 (Blanc, 2011). 또한 지역통화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지역통화 ‘제도(institution)’, 혹은 지역통화 ‘운동(movement)’으로 혼용되어 표현되고 있다. 지역통화를 ‘제도’로 접근을 할 때에는 시스템의 특성 자체에 관심을 두고 운영원리, 효과, 비용 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동’으로 접근 할 때에는 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 추구 및 의지적, 계획적, 실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천경희, 2006).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지역통화를 살펴보기 때문에 ‘지역통화제도’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함을 밝힌다.

## 2. 지역통화제도의 문제의식

지역통화제도는 본래 화폐제도, 즉 ‘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돈은 본래 종류가 다른 것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일률적인 경제적 가치로 수량적으로 평가하여 그것들을 손에 넣는 수단(마코토, 2006)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돈 자체가 상품이 되어 우리 사회의 ‘목적’이 되어버렸다(천경희, 2008). 이러다 보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어 갈수록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박상현, 2004).

윤용택(2005)은 이러한 문제점을 대상화폐(objective money)와 메타화폐(meta money)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대상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폐이고, 메타화폐는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대상화폐를 사고파는 돈인 ‘자본’이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메타화폐가 대상화폐를 압도하게 되면서 사용가치는 있지만 교환가치가 없는 재화와 서비스들은 시장에서 사라졌다. 다시 말해, 그 동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대상화폐를 통해 교환하였지만, 메타화폐가 대상화폐를 지배하게 되면서 시장이윤이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리에테르(1998)는 현재 인간이 스스로 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오히려 이제는 돈에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에 빗대어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새로운 통화체제의 설립을 주장한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이 근대 문명을 발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성장과 파탄이 반복되는 세계경제의 혼란은 화폐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안,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수많은 지역에서 지역통화운동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요시히로 & 루이, 2002). 즉, 지역통화제도는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지 못하면 무력화되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서화숙, 2005; 천경희, 2008 에서 재인용.)

### 3. 지역통화제도의 역사

역사적으로 지역통화제도는 20 세기 초에 대공황으로 위축된 세계경제에 국가화폐가 유통되지 못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처음 등장하였다. 1930 년대 지역통화의 실험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오스트리아 티롤(Tirol)지방의 베르글(Wörgl)의 사례이다. 베르글에서 지역통화의 파급효과는 대단하여 국가통화인 오스트리아 실링에 비해 14 배의 유통속도로 순환되어 오스트리아 최초의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국가통화시스템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위협을 느낀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시켰다(요시히로 & 루이, 2002).<sup>2</sup>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대부분의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통화운동이 국가통화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그 역할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지역통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하지만 1980 년대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역통화제도가 새롭게 부활하였다. 현재 존재하는 지역통화제도는 이 시기에 생긴 유형들이 발전된 형태이다. 최초의 현대판 지역통화제도는 1983 년 마이클 린튼(Michael Linton)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코목스발레 지역에서 실업률이 18%까지 이르자 지역 자체의 고용능력을 높이고자 레츠(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을 도입한 사례다. 그 후 영국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었고 남미국가들과

---

<sup>2</sup> 오스트리아 베르글 사례 외에도 20세기 초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통화의 시도는 요시히로&루이(2002)를 참고.



일본에서도 도입하였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역통화는 5000 여 개가 시도되어 왔다고 전해진다(Martignoni, 2012).

#### 4. 지역통화제도의 종류

Seyfang & Longhurst(2012)는 2012 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존재하는 지역통화제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23 개국에 3418 개의 지역통화제도 운영단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sup>3</sup> 또한, 지역통화제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계유형이 세부적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를 크게 서비스신용제도(Service Credits), 상호교환제도(Mutual Exchange), 지역화폐제도(Local Currencies), 물물교환시장제도(Barter Markets) 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다.

서비스신용제도는 호혜적인 서비스 교환제도로써 시간을 화폐단위로 보는 제도이다. 서비스신용제도는 지역통화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유형은 타임달러(Time Dollar)로 한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대가를 노동의 시간으로 제공하여 나중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Fureai Kippu'라는 제도는 고령층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시간만큼 나중에 본인도 다른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신용제도는 시간과 평등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지속성(social sustainability)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상호교환제도는 가장 잘 알려진 레츠(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와 같이 회원들간에 가상의 돈을 발행하여 한 회원이 서비스 혹은 물품을 제공하여 플러스 잔고가 생기면 그 서비스나 물품을

---

<sup>3</sup> Seyfang & Longhurst(2012)의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지역통화제도운영단체가 3418개로 집계되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제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Seyfang & Longhurst(2012)에서는 한국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사례를 10개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한국에는 최소 43개의 지역통화제도가 운영 중이다. 즉, 이 연구에 포함된 통계는 국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국가 외의 사례들은 과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제공받은 회원은 마이너스 잔고가 생기는 제도이다. 상호교환제도는 교환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과 공동체 복원을 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가장 중요시 한다.

지역화폐제도는 레츠와 다르게 가상의 돈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돈을 지역에서 직접 발행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뉴욕의 이타카(Ithaca) 지역의 하워스(Hours)라는 화폐제도이다. 이 돈은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물물교환시장 제도는 친환경 단체에서 처음 시작한 제도로써, 장터 같은 모임을 통해 물물교환을 이루는 제도로써 주로 경제적인 부분 보다는 재활용과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다. 이 제도는 주로 남미 지방에서 많이 확산되어 왔다.

## 5. 지역통화제도의 운용원리

지역통화제도 중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레츠 시스템을 통해 그 운용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츠는 ‘현금의 사용 없이도 사람들간에 상품과 서비스들의 모든 종류를 사고 팔 수 있는 모임’(김형용, 1999)으로써, 회원들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화폐 발행을 하다는 것은 가입자가 등록소에서 계좌를 만들고 난 뒤 동일한 유형의 계좌를 가진 다른 회원들로부터 일정량의 서비스를 받고 지역 통화를 그 사람의 계좌로 넣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득 외, 2004).

먼저 레츠는 한정된 지역 내 주민에게만 회원가입의 자격을 부여한다. 회원들은 가입하는 동시에 계좌를 부여 받게 되고 거래를 시작한다. 운영단체는 회원들이 제각기 제공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이러한 내용은 회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원하는 당사자들 간에 지역통화를 이용하여 거래한다. 이 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의 계좌에는 (-) 계정

이 이루어지고, 제공한 사람의 계좌에는 (+) 계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1대1의 교환이 아니라 지역통화제도에 가입한 회원들 전체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원 A가 회원 B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그 대가는 자신이 필요할 때 회원 C나 B 등의 제 3자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류은화, 2000; 천경희, 2006에서 재인용). 이렇게 해서 지역통화 잔액이 없는 회원도 마이너스 잔액을 남기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역통화제도에서는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도 회원들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역통화제도는 돈을 가입된 회원들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다. 즉, ‘돈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여유가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더 쌓이고 공동체가 발전하게 된다. 김용득 외(2004)는 이러한 지역통화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의 부족을 느끼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달리 이자가 있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통장에 비축하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회원들간의 교역의 활성화를 가져다 준다.

## 6. 지역통화제도의 특성과 효과

이러한 지역통화제도는 그 운용방식이 국화통화로 돌아가는 시장질서 다르게 다른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지역통화제도에서 서로간의 채무 관계는 일반적인 시장질서와 비슷하지만 빌린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회원 중 아무에게나 갚으면 되며(대응성), 자원봉사와 비슷하나 봉사의 대가가 있고(호혜성), 이웃 간의 상부상조와 비슷하나 도와주고 나눠주고 빌려준 일을 모두 기록해 놓으며(기록성), 은행의 계좌와 비슷하지만 이자가 없고 거래 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공개성)(Pacione, 1997; 김형용, 2000에서 재인용.)

지역통화제도의 효과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지역통화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적 교환과 거래를 장려 시킨다. 그 결과 지역내의 상점과 활성화와 지역생산 및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내 경제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다(Pacione, 1997; 천경희, 2006).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참여자들간의 소통이 활성화 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존에 시장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이웃간의 비공식적 복지와 간호서비스 등을 활성화 시켜 공동체의 부활을 도모한다. 즉 비공식경제의 정신을 공식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마코토, 2006; 천경희, 2006).

## 7. 대안적 복지체계로의 가능성

한편 Fitzpatrick & Cahill(2002)과 Fitzpatrick & C. Caldwell(2001)은 지역통화제도를 복지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시도라고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통화제도는 돈을 삶의 주체, 목적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사회의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객체와 수단으로서의 사용한다(천경희, 2008).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사랑, 돌봄, 베품, 나눔에 토대를 둔 물품교환과 노동의 제공을 하는 '선물경제'의 영역을 확장시켜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담당한다(박용남, 2009). 지역통화로 인해 갑자기 세상이 변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질 수는 없지만 자신과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근본적 가치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마코토, 2006).

둘째, 지역통화는 임금노동을 넘어서는 노동에 대한 재개념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Seyfang, 2001). 지역통화는 시장성이 없다고 평가 받는 노동력의 가치를 시장경제원리에 구애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통화제도는 아동 돌봄이나 주민들끼리의 상호부조 서비스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Douthwaite, 1996; Seyfang, 2001)에서 재인용.(마코토, 2006) 실제로 Johnson(1998)은 지역통화가 시장경제에서는 그 가치가 평가 받지 못하여 무급노동으로 평가되었던 여성들의 노동을 인정하고 보상하여 양성평등의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Seyfang, 2001). 에서 재인용.

마지막으로 지역통화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복지시민’으로써 거듭나게 한다. 참여자들은 개인이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이나 사회 내에서 ‘돈’을 공유하여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기존의 경제의 원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때문이다(보일, 2006; 천경희, 2008 에서 재인용). 이렇게 지역통화는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을 도모, 지역과제의 해결목구에 맞는 서비스의 교환을 통하여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통화를 통하여 지역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의식과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천경희, 2006). 마코토(2006)는 이러한 지역통화를 링컨의 말을 빌려 지역통화를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적인 돈이라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지역통화제도는 물질주의로부터 탈피한 복지제도, ‘임금노동’ 개념을 넘어 ‘가치노동’의 의미를 회복한다는 점, 복지주체의 권리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적 복지체제로 가능성을 보여준다.

## 8. 우리나라 지역통화 제도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미내사)’라는 민간단체에서 1998년도에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9년 초반기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2000년 31개의 지역화폐제도가 존재하였다(권인천, 2001; 천경희, 2009). 하지만

한국경제가 IMF를 극복하면서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자 수많은 지역통화제도는 소리도 없이 사라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곳은 한밭레츠 등 한두 곳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이창우, 2000; 조옥, 2012). 하지만 최근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국내에서도 IMF 때와 같이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아지고 공공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 그리고 여성가족부, 노동부와 같은 정부차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조옥, 2012; 천경희, 2009).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현재 한국 지역통화제도의 현황은 <표2-1> 와 같다. 현재 한국에는 43개의 지역통화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2-1> 우리나라 지역통화제도 현황

#	운영단체	지역	화폐이름	도입 년도
1	과천품앗이	경기도 과천시	아리	2000년
2	관악사회복지	서울시	사랑	2010년
3	구미사랑고리	경상북도(구미시)	사랑	2004년
4	난곡동 청소년공부방	서울시	넌리	2011년
5	대구본동종합사회복지관	대구시	늘품	2005년
6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미내사)	서울시	FM	1998년
7	사하 품앗이	부산시	송이	2007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 e 품앗이’(#8~16)				
8	강서 e 품앗이	서울 강서구	문	2012년
9	관악 e 품앗이	서울 관악구	문	2012년
10	광진 e 품앗이	서울 광진구	문	2012년
11	구로 e 품앗이	서울 구로구	문	2012년
12	노원 e 품앗이	서울 노원구	문	2012년
13	도봉 e 품앗이	서울 도봉구	문	2012년
14	마포 e 품앗이	서울 마포구	문	2012년
15	양천 e 품앗이	서울 양천구	문	2012년

16	은평 e 품앗이	서울 은평구	문	2011 년
서울시주택정책과 S머니 사업(#17~19)				
17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한울	2010 년
18	방화 11 종합복지관	서울시	가든	2010 년
19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사랑	2011 년
20	서천 레츠	서울시	서래	2008 년
21	서초자원봉사센터 '서초품앗이'	서울시	품	2009 년
22	성남누리	서울시	누리	2012 년
23	성남문화재단 '문화통화'	경기도 성남시	문화	2007 년
24	송파자원봉사센터 '송파품앗이'	서울시	SM	1999 년
25	실상사 살레품앗이	전라북도 지리산	살레	2010 년
26	안성바우	경기도 안산시	바우	2010 년
여성노동자회 '희망품앗이' 사업(#27~37)				
27	경주지부	서울시	씨앗	2008 년
28	광주지부	광주시	씨앗	2008 년
29	대구지부	대주시	씨앗	2008 년
30	마산창원지부	경상남도	씨앗	2008 년
31	부산지부	부산시	씨앗	2008 년
32	부천지부	경기도 부천시	씨앗	2008 년
33	서울지부	서울시	씨앗	2008 년
34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씨앗	2008 년
35	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씨앗	2008 년
36	인천지부	인천시	씨앗	2008 년
37	전북지부	전라북도	씨앗	2008 년
38	연수구청	인천시	냥	2012 년
39	의정부 레츠	경기도 의정부시	누리	2009 년
40	인천평화 레츠	인천시	평화	2011 년
41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시	두락	2008 년
42	하자센터	서울시	별	2012 년
43	한밭레츠	대전시	두루	2000 년

## 제 2 절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과 설계방식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그 시작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orne(1996)은 지역통화의 경제적 효과 역시 사회적인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며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은 비경제적인 동기에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지역통화제도의 도입은 좀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천경희, 2006 에서 재인용). 또한 Schroeder, Yoshihisa, & Marie(2011) 역시 지역통화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속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지역통화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먼저, 지역통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역통화제도의 설립동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역통화제도의 다양한 설계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 1.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관점

먼저 지역통화제도의 효과가 다양한 만큼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즉, 다양한 분야와 학자들 그리고 실천가들이 모두 개념적으로는 같은 ‘지역통화’라는 제도를 논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인식하는 지역통화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다. Liesch & Birch(2000)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레츠는 지역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확대, 실업자들의 기술활용, 재화와 서비스의 외부의존성 극복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자족적 상태로 나아가려는 동기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여기서 지역통화의 목적은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업문제 해결과 자립생활 확립이라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감정기, 백종만, & 김찬우, 2005). 반면에 우파적 입장에서 시장과 연계하여 레츠를 이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들은 레츠에서 경제행위는 자발적이고 유기체적 시장의 사회적 성격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및 보수주의적 활동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Barry and Proops, 2000:16). 이 외에도 Fitzpatrick & C Caldwell(2001)은 레츠를 생태주의의 이상주의와 사회복지적 실용성을 접합시킨 ‘근본적 개혁정책(radical reformism)’이라고 바라본다.

지역통화운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Seyfang(2001)은 <표 2-2>과 같이 크게 ‘지역경제발전(local economic development)’관점과 ‘생태적 지역발전(sustainable local development)’관점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2-2> Seyfang(2001)의 ‘지역경제발전’ 관점 vs. ‘생태적 지역발전’ 관점

지역경제발전 관점	생태적지역발전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소득 증가</li> <li>· 일자리 창출</li> <li>· 실업자 복지혜택</li> <li>· 직업 훈련, 경험 기회 제공</li> <li>· 취직을 위한 자아존중감, 네트워크 향상</li> <li>· 사회 네트워크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욕구를 비공식 일자리를 통해 해결</li> <li>· ‘일’에 대한 재 개념화</li> <li>· 지역화, 자립 촉진</li> <li>· 소비 개념의 변화, 공유 재활용, 자원소비 절약</li> <li>· ‘녹색’ 사회 네트워크 형성</li> </ul>

지역경제발전관점에서 지역통화운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사용하여, 지역의 경제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내의 사회관계망을 재구성하는 정책수단으로써 지역소득 증가, 지역사업 활성화, 직업교육과 경험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시키는 일자리 디딤돌사업 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DETR, 1999; North, 2000b; SEU, 2000; Seyfang, 2001 에서 재인용.) 이는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 내의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지역통화제도라는 도구로 지역사회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연계망, 새로운 기술, 그리고 경제적 배치의 효과적인 구조와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김형용, 1999). 이는 주로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자 주류 경제학에 편입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관점에서 지역통화는 기업과 개인의 욕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경제학적 도구가 될 수 있다 (Seyfang, 2001). 즉, 지역경제발전관점은 지역통화운동이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아니라, 보완적인 의미에서 지역사회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DeMeulenaere, 1998). 김형용(2000)에 의하면 지역경제발전 관점으로 지역통화를 바라본 선행연구들은 자립경제 시장 창출, 지역 내의 고용 증가, 지역사회 연계망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상호원조,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반대로 생태적지역발전 관점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라는 주류 흐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생태주의(green)’적 관점과 ‘신경제(new economies)’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관점은 권력분권화, 지역화, 자립성, 효율성보다는 충족성, 경제적 성장과 소비의 감축 등을 주장한다. 즉, 지역발전을 물질적 이익의 증가가 아닌 질적 풍부함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노동과 부의 재개념화를 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이다(Seyfang, 2001). 생태적지역발전 관점으로 지역통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에 관한 해석을 상호교환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지역환경의 파괴를 저지하고 사회적 평등을 높임으로서 반생태주의적인 시장경제의 무한적 이윤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형용, 1999). 이 입장은 반자본주의적인 태도이기 보다는 참여자들이 경제적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급과 착취를 이슈로 만들어내어, 강압이 아닌 동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eyfang, 1994; 김형용, 1999에서 재인용).

## 2. 지역통화제도의 설립 동기

North(2000a)는 영국,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아일랜드 등의 지역통화제도들을 대상으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사례 조사를 통하여 지역통화제도의 설립동기를 <표 2-3>와 같이 6가지로 정리하였다.

먼저,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지역통화를 시작하는 이들은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역통화제도 참여자들은 주류경제적 가치에 동의한다. 이들은 하나의 사업과 같이 인식하며 지역통화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질과 홍보에 관심을 갖고, 사업체와의 연계를 모색한다.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통화가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요시히로 & 루이, 2002)의 경우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표 2-3> North(2000a)의 지역통화제도 설립동기

설립동기유형	요약
가치 중립적 접근	지역통화는 가치배제적인 도구로서 규범적이지 않고 개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경제 발전적 접근	지역통화는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
조직 발전적 접근	지역통화는 조직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직의 소비자/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회적배제해소적 접근	지역통화는 사회소외계층을 주류노동 시장에 재편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이다.
생태적주의적 접근	지역통화는 생태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좀더 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도구이다.
대안사회운동적 접근	지역통화는 주류경제에 대응하는 대안사회 추진운동의 도구이다.

둘째, 경제적 발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유형이다. 이들은 국가통화의 부족으로 인해 제한된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사업자들은 지역통화를 사용함으로써 통화의 유통속도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지역통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선적 의미의 도구로써도 인식되어 ‘지역물품 소비’ ‘지역자부심’ 등의 움직임으로 나타나 결국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는 구조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통화인 뉴욕 Ithaca Hours 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세 번째는 조직의 발전적 접근은 지역통화의 사용을 통해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조직의 혁신, 계획, 일 능력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그 조직의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금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미국의 주류 의료사업장들은 이런 접근으로 지역통화를 사용한다. 즉, 노인들을 위해 봉사를 하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의 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노인돌봄에 종사하는 은퇴자들에게 시간을 제공하여 나중에 보상받는 “Fureai Kippu”사업이 있었다(Hirota, 2011).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통화제도인 Time Money 역시 여기에 속하는데 멘토링과 같은 학생들의 개인 교습 프로그램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조직의 한 사업으로서 지역통화제도를 실시한다.

네 번째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서 접근하는 유형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부활이다.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로 인한 사회적 공동체 안전망이 실업자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주류 노동시장에 편승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참여자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편성하고 활성화시켜 직업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섯 번째로, 친환경적 접근은 생물지역주의를 목표로 ‘지역’에 중요성을 염두하고 제도를 설계한다. 이들은 지역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리적으로 제한하고 지역화된 경제를 구축하여 생산의 지역 소유권 점유, 화석연료 사용 감소, 이동비용, 환경오염 해결 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Pacione(1998)의 주장처럼 세계화에 대한 대응하는

도구으로써 지역통화를 인식한다. 실제로 초기 레츠의 창시자들은 대부분 생태주의자들이라고 전하고 있다(김형용, 1999)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적 접근은 화폐개혁, 녹색주의자, 생태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지역통화를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지역통화에 ‘이자없는 돈’을 통해 성장주의적 경제에 대응을 강조한다. 대부분 이들은 지속성에 대해 급진적 보수주의 접근을 택하고 소규모 공동체(gemeinschaft) 생활을 지향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지역통화를 바라 본다.

### 3. 지역통화제도의 설계 유형

North(2000a)는 지역통화제도가 적절한 설립동기와 함께 제도 설계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통화제도 운영단체들의 설계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North(2000a)의 틀은 <표 2-4>과 같다.

<표 2-4> North(2000a)지역통화제도 설계 요인

지역통화제도 설계 요인	세부 항목
통화 설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화 발행방식</li> <li>· 통화 단위 설정 방식</li> <li>· 통화 사용의 지리적 범위</li> <li>· 국가화폐와 환전여부 유/무</li> <li>· 마이너스 이자 유/무</li> </ul>
계좌 관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거래 한도</li> <li>· 거래내역 공개성 여부</li> <li>· 관리 규제기구의 존재여부</li> </ul>
운영조직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설립 유형</li> <li>· 조직운영위원 선출 방식</li> <li>· 조직의 규모</li> </ul>
제도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적 전략” 혹은 “확장적 전략”</li> </ul>

## (1) 통화 설계 방식

통화 설계 방식은 지역통화의 핵심인 ‘통화’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화폐의 발행방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통화설계방식의 기본으로 실제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계좌를 사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사용하기도 한다.<sup>4</sup>

또한 통화의 단위 설정기준도 중요하다. 이는 지역통화를 노동시간에 연계시킬 것인지 혹은 국민통화와 연계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표준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일종의 노동화폐 방식이고 후자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공동체화폐 단위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노동시간을 연계한 방식은 주로 평등과 교환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에서 고소득자들과, 사업체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국가통화와 연계시키는 경우는 편리함이 있지만, 주류경제학적인 가치에 편승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국가통화와 연계한 지역통화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시간과의 연계를 권고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지역통화의 사용가능 지역적 범위를 살펴본다. 지역통화가 지리적 범위의 설정에 따라 회원활성화, 지역순환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역통화제도를 국가통화의 환전가능 여부와 지역통화제도의 마이너스 이자 존재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통화와의 환전 가능여부와 마이너스 이자의 개념은 해당 단체가 국가 화폐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sup>4</sup> 물리적 형태를 갖는 화폐는 이미 국가통화에 익숙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쌓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 이용과 확산이 훨씬 높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가 관리되지 않아 거래하는 참여자들 간에 관계형성에는 제한적이고, 소외계층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포인트 형태의 카드를 도입한 사례, 수표형을 택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 (2) 계좌 관리 방식

설계방식의 두 번째 요인은 각 단체에서 개인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즉, 개인 계좌의 거래 한도<sup>5</sup>, 개인 거래 내역의 타 회원 공개성 여부, 개인계좌 관리 규제기구의 유무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 (3) 운영 조직의 특성

운영 조직의 특성은 그 단체의 특성과 운영 조직의 성격을 뜻한다. North(2000a)에 따르면 조직의 성격에 따라 일을 추진해나가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이다. 여기서는 운영조직의 성격과 그 조직의 운영방식, 즉 운영위원회의 선출방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외에도 전체 회원의 규모와 지역적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지역통화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 (4) 제도 활성화 방안

제도 활성화 방안은 신입회원 모집에 대한 운영단체의 접근 방식이다. 조직의 목적에 맞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고민을 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운영단체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단체들은 결국 운영위원들과 비슷한

---

<sup>5</sup> 지역통화는 회원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신용이 있는 사람도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운영을 위해서는 전체 거래의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어느 정도 0 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기만 하고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계속 생긴다. 이 때, 운영단체에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계속해서 마이너스 계좌를 갖고 있는 회원을 관리하는 규정의 정도에 따라서 그 제도 유지의 신뢰와 엄격함이 규정되기 때문이다. North(2000a)는 개인계좌에 관한 방침은 반드시 가입 회원들이 수용 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향의 회원들로만 구성된다. 물론, 조직의 목적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이는 조직의 발전적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North(2000a)는 이런 점에서 지역통화의 운영단체들이 ‘발전적 전략(development strategy)’과 ‘확장적 전략(growth strategy)’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라고 제안한다. 발전적 전략은 회원들의 수를 제한하고 운영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고, 성장적 전략은 지역 내 회원들의 수를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는 방향이다. 그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동안 많은 지역통화제도들이 주류적 경제에 발을 담고 있는 다양한 사업체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너무 이념적인 성향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제 3 장 연구 방법론

이 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Q 방법론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2 절에서는 Q 방법론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한다. 그리고 3 절에서는 Q 방법론의 실행과정을 설명한다.

### 제 1 절 왜 Q 방법론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인식유형을 분류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어떠한 주제에 대한 인식이란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경험의 변화과정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차이는 개인의 내적 기준이나 주관적 틀에서 설명되어야만 개인차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경수, 2006).

하지만 개인의 사고 방식을 측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째, 복잡한 사람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언어로서 설명하기 힘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명료성(Clarity of Attitudes)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둘째, 개인의 내적 사고는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 내부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이 같은 이유로 사형제도에는 찬성을 할 수도 있다. 즉, 사고방식의 일관성(Consistency of Attitudes)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연구에서 통계적인 유의수준이 주는 중요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질적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Statistical Significance of Attitudes)해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고 방식의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연구자의 개입의 가능성(Investigator Influence on Attitudes)이 있기 때문이다 (Barry & Proops, 2000:18-20).

Barry & Proops(2000:19-22)는 개인의 사고 방식을 연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Q 방법론을 제시한다. 심층인터뷰(Interview)와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이용한 질적 연구(Qualitative Analysis)는 다양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만, 통계적인 의미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양적 연구(Quantitative Analysis)는 내용의 명료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개인의 내적 체계를 측정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체계적이고 엄격한 수량적 방법으로 측정해내는 방법으로서 주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반영하고 또한 통계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제시된 4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Q 방법론은 양적과 질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현수 & 원유미(2000) 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지각, 개인적 구조, 신념체계 등은 자기중심적이라는 전제 하에 개인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신념체계 및 태도를 서열화 할 수 있다. 둘째, 각 개인의 주관적 견해나 사고 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태도구조의 유사성 및 상이성에 따라 개인들간의 인지 역시 서술할 수 있다. 셋째, 조사 대상자들이 Q분류를 통해 자아참조 진술의 순위를 매기면 진술문 속에 포함된 모든 의견이 다른 의견들과 비교하여 서열화된다. 마지막으로, Q 표본은 소표본, 인물, 주관 중심, 그리고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Q 방법론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 대상자 개개인의 답변이 모두 다른 대상자들과 연결되어 있고, 주제의 담론 속에 숨어 있는 ‘이상(idealized)’ 유형을 추출 해낼 수 있는 것이다(Barry & Proops,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적으로 두고 있는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지역통화제도에 관한 태도, 신념, 확신, 가치 등과 같은 인식과 그 인식반응의 차이를 위해서는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표준적인 의미를 상정하지 않고 현장의 운영자들이 가진 주관적인 반응을 비교해 볼 수 있는 Q 방법론이 적합할 것이다.

## 제 2절 Q 방법론

Q 방법론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관점, 주장, 믿음, 태도 등과 같은 주관성(subjectivity)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다(Brown, 1993; Webler 외, 2009에서 재인용). Q 방법론은 그 사상적 연원을 Foucault(1970)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인간에 대한 결정주의적 입장과 그 대안인 인본주의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분석도구로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한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 1902~1989)은 195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과학에 있어 주관적 측면을 강조하고 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Q방법론을 고안하였다(김홍규, 2008; 신원식, 2002).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Q 방법론에서는 연구자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대신에 응답자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결적 정의(operant definition)의 개념을 채택하게 된다. 즉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행위자의 관점에서부터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다(김홍규, 2008:9-10pg). 이러한 원리는 어두운 방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으로 종종 비유되곤 한다. 우리가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닿는 곳만 볼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추측을 하는데, 이때 우리는 방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미리 정해놓은 조작적(operational) 개념이고 단지 빛이 비추어 ‘발견’에 초점을 두는 것이 Q 방법론인 것이다(김홍규, 2008).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Q 방법론은 가설추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주의 과학방법론의 연역과 귀납을 이용하여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만들고 검증하는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reasoning from the hypothesis)”라면, Q 방법론은 관찰을 통해 가설을 만들어내는 “가설로 향하는 논리(reasoning to the hypothesis)”,

즉 가설 발견의 논리인 것이다(김홍규, 2008, 20pg).

하지만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회과학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그 동안 경험주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들은 주관성연구 자체가 과학적 행위 범주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관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또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주관성을 배제해서는 인간의 본질이나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실증주의 사조를 비판한다. 김홍규(2008)는 과학사회의 진보와 과학지식의 창의성을 확대를 위해서는 위 두 가지의 철학적 기반의 조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 중 하나의 시도로써 Q 방법론을 제시한다.

### 제 3절 Q 방법론의 과정<sup>6</sup>

이 절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Q방법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Q방법론의 절차를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연구 진행 절차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진행 절차과정은 <표3-1>로 정리된다.

#### 1. Q 모집단(Q population)의 구성

Q 모집단은 Q 연구를 위해 수집된 항목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모집단에 포함된 각각의 항목을 Q 항목(Q item)이라고 하는데, 이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물체(thing) 혹은 자극항목(stimulus item)으로써 진술문, 사진, 그림, 광고물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드 위에 인쇄된 진술문(statement)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Q 모집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먼저 Q 모집단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한다. 예를

---

<sup>6</sup> 본 절은 Brown(1980), 김홍규(2008), 김순은(2007), 김현수&원유미(2000) 등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들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한국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Q 모집단의 정의를

<표 3-1> Q 방법론의 진행 과정

진행 절차	내용
① Q 모집단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 모집단 정의(“지역통화제도의 설립동기, 목적, 목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모든 자아 지시적(self-referent) 진술문”)</li> <li>심층면접, 서면제출방식, 문헌 조사를 통해 총 200여 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Q 모집단 구성</li> </ul>
② Q 표본의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rth(2000a)의 지역통화제도 목적에 따라 6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어 최종 30개의 Q 표본 선정</li> <li>Q 카드와 Q 표본 분류표 준비</li> <li>해당 전문가를 통해서 Q 표본의 타당도 검증</li> <li>예비 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math>r=0.78</math>)</li> </ul>
③ P 표본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눈덩이표집방법을 통해 지역통화제도운영자 29명 선정</li> </ul>
④ Q 표본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P 표본에게 정상분포에 따라 직접 진술문을 제시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강제분류</li> <li>분류 후 인터뷰를 통해서 양극단을 선택한 진술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 파악</li> </ul>
⑤ 자료 처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QMETHOD 를 이용하여 유형분석을 통해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 유형 도출</li> </ul>

“지역통화제도의 설립동기, 목적, 목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모든 자아 지시적(self-referent) 진술문”라고 규명하였다.

진술문의 수집 방법은 기성적 표본 방법(ready made sample)과 자연적 표본 방법(naturalistic sample)으로 나누어진다(Mckeown &

Thomas, 1988).<sup>7</sup> 기성적 표본 방법은 기성에 존재하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진술문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관련된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연적 표본 방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진술문을 제공하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을 더 잘 대변할 수 있고, 연구절차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연적 표본 방법은 면접법(interviewing)과 지필법(written narratives)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 혹은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접 진술문을 추출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Q 모집단의 정의는“지역통화제도의 설립동기, 목적, 목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모든 자아 지시적(self-referent) 진술문”이다. 즉, 본 연구의 Q 모집단은 한국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이 지역통화제도에 갖고 있는 인식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성적 표본 방법과 자연적 표본 방법 모두 적용하여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먼저, 기존에 국내에 있는 지역통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신문기사, 학술지, 논문, 책, 방송 등)을 통해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문헌의 내용 중에서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지역통화제도는 OO 이다.’, ‘지역통화제도는 OO 여야 한다.’, ‘지역통화제도는 OO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또한 문헌 조사를 통한 진술문이 대부분 학계 위주의 의견일 수 있다고 우려되어 심층면접과 서면제출을 통한 지필법을 모두 실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대상자이자 현재 지역통화제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영자 3 명과 지역통화제도의 연구자이자 대전 한밭레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1 명, 총 4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지역통화네트워크

---

<sup>7</sup> 김순은(2007)은 진술문 수집방법을 구술형(직접면담방식, 서면제출방식)과 추출형(문헌추출방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홈페이지에 가입된 전국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과 관련 사람들 70 명에게 서면제출 방식으로 진술문을 요청하여 진술문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0 여 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 2. Q 표본(Q Sample)의 선택

Q 모집단을 구성하고 나면 연구에서 사용할 Q 표본을 선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Q 표본은 Q 모집단에서 추출된 항목을 의미하고 Q 표본을 구성하기 위한 표집 방법은 비구조적 표집(unstructured)과 구조적 표집(structured)으로 나뉘어진다. 비구조화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에 가까운 것이다. 예를 들어 진술문이 100개인 모집단에서 표본 수를 20개( $N=20$ )이라고 정하면, 100개의 진술문 중 2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의 선정의 편견을 최소화 해주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모집단의 본질(특성)에 관한 정보를 무시하여 표본이 특정 분야에 편중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조적 표집 방법을 택할 경우 특정한 방향,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택해야 한다(Kerlinger, 1973). 김흥규(2008, p. 97~99)는 비구조적 표집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표집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즉, 모집단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 내에서 비례적으로(proportionately)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다.

비구조적 표집이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구조적 표집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 구조적 방법의 Q 진술문은 피셔식 실험 및 분산설계의 원리(Fisherian Experimental and Analysis of Variance Design Principle)를 따르는 것으로 이론적 관점을 사용하여 진술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즉, 주제에 대하여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모집단에서 진술문의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다. 구조화 표집의 장점은 측정의 측면에서 통제를 할 수 있고, 보다 이론과 가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혹 선택된 이론이나 범주 자체에 대한 적절성에 의문을 던져 Q표본의 타당도(Validity)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Q 방법론이 주관성을 탐구하는 것으로 외부적 관점이나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피험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타당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Sunland, 1962; Neff&Cohen, 1967; 김흥규, 2008에서 재인용). 하지만 김흥규(2008)는 타당도의 제고의 측면이 아니더라도 연구주제의 관련성이란 측면에서 구조화 표본 선택을 사용할 때 전문가의 검증 등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Q 표본이 완성되면 사전검사(pre-test)와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최종적으로 Q 표본을 완성하게 된다.<sup>8</sup>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구조적 표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용한 이론적 틀은 앞장에서 제시한 North(2000a)의 6가지 설립동기를 사용하였다. Q모집단에서 North가 제시한 6가지 관점들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진술문을 비례적으로 각각 6개씩 선정하여 총 36개의 Q표본을 완성하였다.<sup>9</sup> 이후 표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역통화 전문 연구자에게 평가를 부탁하여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이 후 사전검사 과정에서 진술문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적으로 30개의 진술문으로 이루어진 Q표본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Q표본은 <표3-2>와 같다. 확정된 진술문을 갖고 예비 조사를 통해 마지막 단계인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행하였고 r값은 0.78로 나타났다.<sup>10</sup>

<sup>8</sup> Q방법론에서 사전검사와 신뢰도 검사에 관한 내용은 김흥규(2008: p.99~100)을 참조.

<sup>9</sup> Q 표본의 수를 몇 개로 해야 되는지는 대한 의견은 연구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0~60개의 진술문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된다. 하지만 김흥규(2008)는 이 역시 각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sup>10</sup> 통상적으로  $r=0.7$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도구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높은 신뢰도 요구는  $r$ 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계수( $r^2$ )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흥규(2008). 신뢰도 검사 방법은 김흥규(2008:99~100) 참조.



<표 3-2> Q표본(Q 진술문)

#	진술문
1	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4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5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지역통화가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상점이나 사람들에게 보상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7	나는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면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지역통화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생겨 지역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지역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도구라고 생각한다.
11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어떠한 특정 목적(교육, 봉사, 의료, 과외 등)을 돈 없이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12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단체의 서비스나 물품 등을 돈 없이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13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우리 기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나는 지역통화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보다는 우리 기관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15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6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실업자와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17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주부, 노인 등 사회 서비스의 수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로에게 도움 되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수산물 먹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궁극적으로 생물지역주의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23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이미 사용한 물건을 재활용하고 직접 제작한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4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소규모 생태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25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8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9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풀뿌리 주민 조직운동이라고 생각한다.
30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소득활동'이 아닌 '가치생산활동'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에서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표본을 P 표본이라 하는데, P 표본의 선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본의 선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Q 방법론에서는 표본의 수가 상관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본의 수는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와 포괄적 연구(Comprehensive)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는 1명의 연구 대상자에게 상이한 상황에서 상이한 상황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연구에 성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명만 선택해도 연구를 진행 할 수 있다. Q 방법론에서는 사람이 변인이고 항목은 표본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포괄적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수는 요인을 생성하고 요인들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김순은, 2007; 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에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한 단체에 소속된 지역통화 운영자를 P 표본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는 조사 진행 당시 지역통화제도가 한국에 소개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지역통화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자체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표본 사례의 소재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먼저 2012년 1월에 전국지역통화네트워크 준비위원 모임에서 작성된 전국지역통화제도 운영단체 목록과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표 3-3> P 표본 목록

P 표본	성별	소속단체
운영자 1	남	A
운영자 2	여	B
운영자 3	여	C
운영자 4	여	D
운영자 5	남	E
운영자 6	여	A

운영자 7	여	F
운영자 8	남	G
운영자 9	여	H
운영자 10	남	I
운영자 11	남	J
운영자 12	여	K
운영자 13	남	L
운영자 14	여	M
운영자 15	여	N
운영자 16	남	O
운영자 17	남	P
운영자 18	남	Q
운영자 19	남	R
운영자 20	남	S
운영자 21	여	T
운영자 22	여	U
운영자 23	여	A
운영자 24	남	A
운영자 25	여	H
운영자 26	여	N
운영자 27	여	N
운영자 28	여	N
운영자 29	여	N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여 국내 운영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P 표본을 선택해나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 3-3>과 같이 총 22개의 단체에 소속된 지역통화제도 운영자 29명의 P표본을 확정하였다.

#### 4. Q 표본의 분류(Q sorting)

Q 방법론에서 Q 표본을 분류는 한 개인이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의 모형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박경수,

2006). Q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개인의 인식, 견해, 가치관, 태도 등과 같은 자기 준거 시각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하여금 ‘자기 준거’에 따라 Q 표본의 일정한 모형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Q 표본의 분류의 결과를 Q 소트(Q sort)라고 하는데, 이는 즉 한 개인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모형(model)이다. 일반적으로 인쇄된 진술문 카드를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분류판에 분류하게 된다(김순음, 2007; 김헌수 & 원유미, 2000; 김홍규, 2008).

Q 표본 분류에는 강제분류방법(forced sorting)과 비강제분류방법(unforced sorting)으로 나누어져 있다. 강제분류방법은 연구자가 등간척도의 각 등급별로 응답개수를 미리 정해두고 응답자가 정해진 개수만큼 각 진술문에 해당되는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비강제분류방법은 지정된 등간척도 범위 내에서 응답자가 자유롭게 각 진술문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김용득 & 강희설, 2008; 오택섭 & 최현철, 2004).

본 연구에서는 Q 표본을 확정하고 난 뒤 30 개의 진술문을 5cm X 8cm 크기의 Q 카드를 제작하였고 이를 P 표본(연구대상자)들이 분류할 수 있도록 <그림 3-1> 과 같은 분류판을 제작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강제분류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sup>11</sup> Q 방법의 진행은 2012 년 3 월과 4 월 두 달 동안 연구자가 직접 P 표본이 소속된 단체를 방문하여 Q 분류 작업과 후속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중 2 명의 P 표본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sup>11</sup> 김홍규(2008)은 Q 진술문은 단지 인간의 주관적 의견의 한 편린이므로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점수가 부여해서는 안되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서로 비교되어 구조화 되는 강제분포가 필요하다. 또한, 이는 강요된 절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모사지만 모든 심리측정의 절차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고, 강제분류가 개인의 독특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비강제분류와 비교해서 통계적 결과에서 별 차이가 없다(Brown, 1980).

-4	-3	-2	-1	0	+1	+2	+3	+4
반대 ← → 동의								

<그림 3-1> Q 카드 분류판

## 5. 자료 처리 및 분석

Q 방법론의 분석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의 원리와 같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는 변인이 검사물이나 특성이 되지만 Q 방법에서는 Q 소트, 즉 각 연구대상자들의 주제에 관한 생각의 모형이 변인이 된다. 만약 어떤 주제에 대해 두 사람이 비슷하게 분류했다면 그들은 동일한 요인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피험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 요인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다(김홍규, 2008).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Q 방법론 전용 통계패키지인 PQMETHOD를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여기에서 Q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s)로 하고 요인 회전 방식은 배리맥스(Varimax)를 이용하였다.

## 제 4 장 분석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먼저 Q 방법론을 이용한 지역통화제도 인식 유형화 분석 방법을 제시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제도설계요인의 특성을 살펴본 후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할 것이다.

### 제 1 절 지역통화제도 인식 유형

일반적으로 Q 방법론의 연구 결과는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한다(김분한, 이경남, & 이훈희, 2010).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의 개수는 통계적인 자료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3개 혹은 4개 요인을 추출하기도 한다(진상현, 2006). 본 연구에서는 요인적재치가 1 이상인 항목이 7개로 나타났다. 적절한 요인의 개수를 선택하기 위해 요인을 2개, 3개, 4개로 추출하여 각각 분석을 해본 결과 요인 4 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4 가지 요인을 선택하여 변량 극대화(Varimax)를 통해 유형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선택된 4 가지 유형의 누적된 변량(cumulative total variance)은 62%로 나타났다. 이 변량 값은 곧 4가지 유형이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해당 수치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뜻한다.<sup>12</sup>

각 유형의 설명력은 <표4-1>와 같이 유형1은 21%, 유형2는 17%, 유형3은 13%, 유형4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한 P표본(지역통화제도 운전자) 29명 중에서 유형1에는 10명, 유형2는 7명, 유형3은 4명, 유형4에는 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sup>12</sup> 박경수(20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누적변량이 40%이상이면 의미가 있고 50%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이다.

<sup>13</sup> 본 연구의 표본 수는 N=29이므로 95%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적재를 보기 위해서는  $1.96(1/\sqrt{29}) = 0.364$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야 한다.

<표 4-1> 인식유형의 요인적재치와 총변량 비율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요인적재치	10.3406	3.3335	2.4902	1.9055
총변량비율(%)	21	17	13	11
누적변량(%)	36	47	56	62
P표본 수	10	7	4	4

각 유형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P 표본이 지역통화제도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인식의 틀에 따라서 비슷한 의견, 생각, 태도 등을 가진 사람들로 분류한 것으로 각 요인에 속한 P 표본의 요인적재치를 살펴보면 <표4-2>와 같다. 이 중 운영자5, 운영자10, 운영자23, 운영자24는 한가지 이상의 유형에 유의미한 적재를 보이는 것으로 나와 한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운영자5는 유형1, 유형2, 유형3에 모두 유의미한 적재치를 보였다. 운영자10은 유형1, 유형4, 운영자23은 네 가지 유형 모두, 그리고 운영자 24는 유형1과 유형2에 유의미한 적재치를 나타냈다.

<표 4-2> P표본의 각 유형별 요인 적재치

P 표본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운영자 1	0.6135	0.3062	-0.1986	0.3503
운영자 2	0.3666	0.2861	-0.0669	-0.5203
운영자 3	0.6217	0.3914	0.2412	0.0218
운영자 4	0.6585	0.3635	0.2615	0.0839
운영자 5	0.4861	0.3735	0.5714	0.2096
운영자 6	0.4896	-0.0038	0.3728	0.1954
운영자 7	0.0714	0.8247	-0.034	0.0453
운영자 8	0.4028	0.7697	0.0428	-0.0900
운영자 9	0.7062	-0.2257	0.2689	-0.0091
운영자10	0.36110	0.2209	0.1507	0.5556
운영자11	0.0551	0.6664	-0.3533	0.33971
운영자12	0.2625	-0.0739	0.7398	-0.0273
운영자13	0.8250	0.1259	0.0965	0.1544
운영자14	0.6452	0.3516	0.2336	-0.0219



운영자15	-0.1760	0.1905	0.1998	0.6308
운영자16	0.2161	0.0543	0.7843	0.2677
운영자17	0.5848	0.0116	0.1382	-0.2235
운영자18	0.1595	0.3386	0.5129	0.1290
운영자19	0.3412	0.5050	0.0656	0.1264
운영자20	0.1424	0.0976	-0.1164	0.7842
운영자21	0.2145	0.2665	0.1998	0.5369
운영자22	0.2203	0.0114	0.8104	-0.0832
운영자23	0.4509	0.3899	0.4059	0.4550
운영자24	0.3677	0.5362	0.3308	0.4189
운영자25	0.7609	0.1212	0.2018	-0.1577
운영자26	0.0172	0.6081	0.4510	0.0642
운영자27	-0.2045	0.6843	0.4326	0.3040
운영자28	0.2405	0.7049	0.0878	0.1553
운영자29	0.6839	0.3198	0.1717	0.3108

## 1. 각 유형의 공통적 특성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4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4-3>와 같다. 먼저, 네 유형 모두 진술문1(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에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진술문9(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많이 생겨 지역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에는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약간의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네 유형 모두 진술문1에 강한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의 운영자들은 지역통화제도가 시장의 영역과는 분리되어 보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해외에는 기업에서 직접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역통화운영단체가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일 것이다. 또한 진술문9에서 운영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 역시 국내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이 지역통화제도의 실질적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4-3> 각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진술문

진술문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1	-3	-1.47	-3	-1.13	-3	-1.57	-3	-1.31
9	-1	-0.63	0	-0.32	-1	-0.53	-2	-0.69

## 2. 각 유형의 특성

Q방법론에서 각 유형을 분석해내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Q 방법론은 일반적인 요인 분석과 다르게 일군의 변인에 관한 검사를 여러 사람에게 실시하고 얻은 점수를 사람 간에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즉, N 사람에게 검사하고 얻은 점수를 N 사람간에 상관계수를 계산하고, 상호상관계수 행렬을 요인 분석한다. 이렇게 추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요인 정렬하고 해석하여 주관성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Q 요인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응답자들의 집합을 나타내며 이는 한 주제에 대하여 사람들간의 유사한 관점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때 각 유형의 특성은 각 유형에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반응한 항목들(일반적으로 표준 점수가  $\pm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박경수, 2006: pp. 57~58).

### 1) 유형 1- '이웃공동체 지향형'

이 유형에 속한 지역통화제도운영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표4-4>와 같이 진술문19(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z=1.971$ ),

진술문20(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z=1.598$ ), 진술문 4(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z=1.519$ ), 진술문2(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z=1.400$ ) 등 이었다.

반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진술문14(나는 지역통화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보다는 우리 기관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z=-1.687$ ), 진술문28(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612$ ), 진술문26(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z=-1.596$ ), 진술문1(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z=-1.473$ ), 진술문6(나는 지역통화가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상점이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z=-1.324$ ) 등 이었다.

<표 4-4> 유형1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표준점수
19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로에게 도움 되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1
20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598
4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1.519
2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 참여할 수	1.400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표준 점수
14	나는 지역통화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보다는 우리 기관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1.687
28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12
26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1.596
1	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473
6	나는 지역통화가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상점이나 사람들에게 보상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1.324

이 유형에 속한 지역통화운영자들은 지역통화제도를 통한 이웃간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를 이웃간에 품앗이를 통해 본인의 숨겨진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웃과 단절된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매개라고 생각한다. 이는 유형1에 포함되는 운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리더십을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통해 '커뮤니티 임팩트'(를) 하는거죠"*

(운영자3)

*"지역통화제도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회원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운영자4)

*" (지역통화제도는) 이웃들간의 관계가 확대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돈이 있어야지 무언가 할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품앗이를 하고 지역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운영자13)

또한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는 사회 내에서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만의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 속한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써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혹은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운동권' 이런 것 보다는 나이,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운영자4)

"국가적으로 이념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걸로 (지역통화제도)  
인해서 우리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중심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운영자25)

"지역화폐도 결국은 자본주의거든요. 화폐다 라는 것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은 화폐의 이용이  
달라졌자나요. 지역화폐도 품앗이를 할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좁은 지역에서도 자본주의를 양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운영자13)

유형1의 특성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유형1을 다른  
유형과 가장 구분 짓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4-5>와 같다. 유형1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진술문4(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와 진술문2(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을 꿈꾸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서 강한 동의를 나타냈고, 진술문3(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은 유형2와 4에 비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보아 유형1은 North(2000a)가 이야기한 가치중립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진술문7(나는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면 지역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을 보면 다른 유형은 지역통화제도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유형1은 비교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유형1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진술문29(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풀뿌리 주민조직운동이라고 생각한다.)와 진술문15(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풀뿌리 조직에는 동의하지 않고, 지역통화제도를 조직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유형1과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4	3	1.52*	1	0.52	1	0.56	-1	-0.38
2	3	1.40*	-2	-0.73	0	0.31	-1	-0.29
7	1	0.36	0	-0.16	-2	-0.75	-3	-1.19
3	0	0.28	-3	-1.54	0	-0.29	-4	-2.25
29	-1	-0.34	3	1.31	2	0.68	1	0.33
15	-2	-0.81*	0	0.02	3	1.31	0	0.12

\*는  $P < 0.01$ , 그 외는 모두  $P < 0.05$

위의 특성들을 종합해보면 유형1의 운영자들은 현재 주류경제적 가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붕괴되는 지역 공동체의 부활과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자존감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지역통화제도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공동체 부활과 이를 통해 개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형 1을 '이웃공동체 지향형' 이라 명명하였다.

## 2) 유형 2-'대안공동체 지향형'

이 유형에 속한 지역통화제도운영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표4-6>와 같이 진술문30(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소득활동'이 아닌 '가치생산활동'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z=1.973$ ), 진술문20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z=1.927$ ), 진술문27(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z=1.609$ ), 진술문29(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풀뿌리 주민 조직운동이라고 생각한다,  $z=1.313$ ) 등 이었다.

<표 4-6> 유형2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표준점수
30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소득활동'이 아닌 '가치생산활동'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3
20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927
27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609
29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풀뿌리 주민 조직운동이라고 생각한다.	1.313

#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표준 점수
14	나는 지역통화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보다는 우리 기관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1.873
6	나는 지역통화가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상점이나 사람들에게 보상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1.706
3	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1.536
1	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125

반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진술문14(나는 지역통화 활성화 그 자체가 목표이기 보다는 우리 기관의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z=-1.873$ ), 진술문6(나는 지역통화가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상점이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z=-1.706$ ), 진술문3(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z=-1.536$ ), 진술문1(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z=-1.125$ )등 이었다.

유형2에 속한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 역시 지역 공동체의 회복, 이웃과의 소통회복, 개인의 역량개발 등을 강조한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재능은 있거든요. 인본주의사상에 입각해서, 인간은 다 능력은 있고. 거기에 기초를 해서 자신이 거기의 능력을 개발하면 이웃과 나눌 수 있고, 관계도 향상이 되고..... (지역통화제도는) 시장경제에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화폐운동을 통해서 사람을 인정받게 해주는 거예요.”

(운영자11)

하지만 유형 2의 가장 큰 특성은 반자본주의적 이념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유형2에 속한 이들은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도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화폐의 탄생 배경이 무한경쟁적인 시장에 대안으로서 발생한 것이고. 물론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지만. 모든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문제점과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고 목표예요.”*

(운영자8)

*“계속 시장은 발전하고 우리는 거기에 계속 따라가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끼리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대안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시작했어요.”*

(운영자7)

유형2의 특성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유형2을 다른 유형과 가장 구분 짓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4-7>과 같다. 유형2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진술문30(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소득활동’이 아닌 ‘가치생산활동’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술문27(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적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진술문29(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풀뿌리 주민 조직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진술문28(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서 적극 동의하였고 진술문 26(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에는 유형1과 유형3에서 강하게 부정하는 반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택된 진술문은 모두 사회운동적 성격을 나타내는 진술문이다. 즉, 유형2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지역통화제도를

사회운동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진술문3(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점도 유형2가 위의 가치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7> 유형2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30	1	0.66	4	1.97*	-1	-0.48	2	0.91
27	-2	-0.68	3	1.61*	-3	-1.05	2	0.55
29	-1	-0.34	3	1.31	2	0.68	1	0.33
28	-4	-1.61	2	0.59*	-4	-1.60	-2	-1.01
26	-3	-1.60	0	0.33*	-4	-2.08	4	1.39
3	0	0.28	-3	-1.54	0	-0.29	-4	-2.25

\*는  $P<0.01$ , 그 외는 모두  $P<0.05$

요약하면 유형2의 운영자들에게는 지역통화제도는 공동체를 부활, 지역적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를 매개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즉, 유형2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도로써 이들이 지향하는 공동체 역시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식하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안 공동체 지향형’이라 명명하였다.

### 3) 유형3 - '생활공동체 지향형'

이 유형에 속한 지역통화제도운영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표4-8>와 같이 진술문20(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z=1.894$ ), 진술문25(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439$ ), 진술문24(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소규모 생태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z=1.409$ ), 진술문15(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z=1.305$ ), 진술문18(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주부, 노인 등 사회서비스의 수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182$ ), 진술문23(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이미 사용한 물건을 재활용하고 직접 제작한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z=0.969$ ) 등 이었다.

반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는 진술문26(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z=-2.078$ ), 진술문28(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600$ ), 진술문1(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z=-1.575$ ), 진술문27(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046$ ) 등 이었다.

<표 4-8> 유형3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표준점수
20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역량개발을 통해 본인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1.894
25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39

24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소규모 생태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1.409
15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단체의 긍정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305
18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주부, 노인 등 사회서비스의 수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82
23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이미 사용한 물건을 재활용하고 직접 제작한 상품을 구매하는 활동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0.969 <sup>14</sup>
#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표준 점수
26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2.078
28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600
1	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575
27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46

유형 3은 유형1과 유사하게 운영자들은 지역통화를 사회운동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써 접근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다. 대안화폐가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거다. 라는 걸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지역통화제도와 자본주의가 연결되어있다는 문장을 처음 봤습니다”

(운영자12)

또한 유형 3은 지역통화제도의 친환경적인 생활양식 장려의

<sup>14</sup> Q 방법론에서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pm 1.00$  이상의 항목을 갖고 해석하지만 그렇다고  $\pm 1.00$ 이하에 분포한 항목들이 중요치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김홍규, 2008).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역통화제도가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생활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North(2000a)의 친환경주의적 접근보다는 덜 이념적이고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환경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North(2000a)는 근본적인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생태주의적인 입장인 반면, 유형 3의 운영자들은 반자본주의적 이념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면에서 소소하게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지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를 하나의 도구로써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역통화제도는 소속 단체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즉, 다른 유형이 지역통화라는 하나의 제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4-9> 유형3과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25	0	-0.04	0	-0.23	4	1.44*	-1	-0.14
15	-2	-0.81	0	0.02	3	1.31*	0	0.12
3	0	0.28	-3	-1.54	0	-0.29	-4	-2.25
30	1	0.66	4	1.97	-1	-0.48*	2	0.91
16	2	0.77	1	0.35	-2	0.86*	0	0.23

\*는  $P<0.01$ , 그 외는 모두  $P<0.05$

유형3의 특성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유형2을 다른 유형과 가장 구분 짓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4-9>과 같다. 먼저 유형3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진술문25(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재활용과 같은 친환경적 생활양식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진술문15(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에 적극 동의한다. 이는 유형3의

운영자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진술문3(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과 같이 유형3은 유형1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중립적이고, 진술문30(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소득활동'이 아닌 '가치생산활동'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과 진술문16(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실업자와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과 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인식변화나 경제적인 변화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유형 3은 유형1과 마찬가지로 가치중립적이다. 즉, 지역통화제도를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운동적 차원의 접근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지만 유형3의 운영자들에게 지역통화제도는 개인의 역량개발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또한 동시에 이들에게 지역통화제도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방식 등에 개개인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형3을 '생활 공동체 지향형' 이라 명명한다.

#### 4) 유형 4 - '생태적 공동체 지향형'

이 유형에 속한 지역통화제도운영자들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은 <표4-10>과 같이 진술문19(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로에게 도움 되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z=2.162$ ), 진술문26(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z=1.386$ ), 진술문24(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소규모 생태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z=1.320$ ), 진술문21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수산품을 먹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256$ ) 등 이었다.

반대로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진술문3(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z=-2.252$ ), 진술문5(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z=-1.659$ ), 진술문13(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우리 기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448$ ), 진술문1(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z=-1.305$ ), 진술문7(나는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면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191$ ), 진술문28(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z=-1.014$ ) 등 이었다.

<표 4-10> 유형4의 대표 진술문과 표준점수

#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표준점수
19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서로에게 도움 되는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162
26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1.386
24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소규모 생태공동체를 만드는데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	1.320
21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수산품을 먹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56
#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표준점수
3	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252
5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59

13	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우리 기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48
1	나는 대기업들에게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면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305
7	나는 지역통화제도를 사용하면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91
28	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본주의 임금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14

유형4는 생태적 시각에서 반자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대안으로써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유형2와 유사하게 반자본주의적 가치를 공유하지만 유형4는 단지 이념적이기 보다는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North(2000a)가 이야기하는 친환경적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형3과 다르게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저항으로써 생태적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는 장기적으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함께하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보았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성향이 비슷하고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야지 더 잘되더라고요. 결국은 공동체라는 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결국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운영자15)

유형4의 특성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 유형4를 다른 유형과 가장 구분 짓는 진술문을 살펴보면 <표4-11>와 같다. 먼저 유형4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진술문26(나는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현재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와 진술문21(나는 지역통화제도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지역 농수산품을 먹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에 적극 동의한다. 이는 유형4의 운영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써 생태주의적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3(나는 지역통화제도를 만들 때 어떠한 특정한 가치에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과 진술문4(나는 지역통화제도가 특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술문5(나는 궁극적으로 지역통화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시 유형4의 반자본주의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4-11> 유형4와 타 유형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술문과 표준점수

진술문 #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부여 점수	표준 점수
26	-3	-1.60	0	0.33	-4	-2.08	4	1.39*
21	-1	-0.50	-3	-0.98	-2	-0.84	3	1.26*
20	4	1.60	4	1.93	4	1.89	2	0.83*
27	-2	-0.68	3	1.61	-3	-1.05	2	0.55*
17	0	-0.24	-1	-0.34	0	-0.38	1	0.49
4	3	1.52	1	0.52	1	0.56	-1	-0.38*
11	2	0.72	1	0.38	0	0.16	-2	-0.90*
13	0	-0.19	-2	-0.64	0	-0.04	-3	-1.45*
5	1	0.39	2	0.75	2	0.78	-4	-1.66*
3	0	0.28	-3	-1.54	0	-0.29	-4	-2.25

\*는  $P<0.01$ , 그 외는 모두  $P<0.05$

종합해보면 유형4는 지역통화제도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써 생태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써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통화제도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선호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한다. 고로 유형4를 '생태 공동체 지향형'이라고 명명한다.

## 제 2 절 국내 지역통화 단체들의 제도설계적 특성

본 절에서는 지역통화제도의 제도설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2장 2절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North(2000a)의 틀을 이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운영자들이 소속된 22개의 단체들의 설계방식을 각각 살펴보았다.<sup>15</sup>

통화설계방식에서 4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통화발행방식 즉, 지역통화제도의 종류를 살펴보면 3개의 단체 M, P, J는 서비스신용제도 중 하나인 타임달러제도를 선택하고 있었고, 그 외의 단체들은 모두 대표적인 상호교환제도인 레츠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타임달러제도는 모두 시간을 기준으로 단위를 설정하고 있었고, 3개의 단체 모두 물물교환은 일체 없이 시간으로 환산되는 서비스교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었다. 레츠를 선택한 단체들은 모두 국가화폐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1원에 1지역통화단위로 맞추고 있었다. 레츠에서는 물물교환 시 국가화폐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서비스의 교환을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기준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 시간의 노동을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은 소속단체의 회원들끼리 합리적인 가격을 합의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단체 A의 한 회원이 다른 회원들을 대상으로 쿨트강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는 일대 일이 아니라 한 회원이 다수의 회원에게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을 회원들끼리 적당히 합의하여 교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를 North(2000a)는 ‘가변적 가치(Variable valuation)’책정 방식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러한 형태는 회원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sup>15</sup> 각 유형은 운영자들의 인식의 유형이기 때문에 화폐설계방식 또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해야 하지만 이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도의 설계요인은 이미 해당 단체가 설립되었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착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이외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운영자들이 속한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만 제도활성화 방안은 운영자 개인의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각 단체의 화폐사용의 지리적 범위를 비교적 방대하였다. 해외 사례의 경우 대부분 소도시에서 지역통화제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사용의 지리적 범위가 자연스럽게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모든 단체들이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범위가 시, 구 단위로 아주 방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화폐와 환전 가능한 곳은 없었다. 국가화폐로 환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제도가 독립적 화폐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제도로써 성숙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이 정도로 성숙된 단체는 찾아볼 수 없고 국내 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이너스 이자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은 없었다. 단체 N의 경우 매월 (+)계좌에 한해서 5%의 이자를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화폐의 순환을 장려하기 위함이기 보다는 운영단체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단체 1의 경우 정확한 이자율이 있지는 않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15만원 이상의 계좌에 한해서 그 이상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자동 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 역시 화폐의 순환의 목적보다는 나눔의 목적이 더 큰 것이었다.

계좌관리 방식에서 개인 거래의 한도, 즉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는 대부분의 단체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22개의 단체 중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9곳, 마이너스 제한이 없는 곳은 10곳, 아직 미정인 곳 1곳, 그리고 마이너스 계좌자체가 없는 곳이 2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한이 있는 10개의 단체에서도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H의 경우 조사 당시 설립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아직까지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이었다. 한편, 단체 L과 I의 경우 레츠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계좌 제도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두 단체의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마이너스 계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마이너스 제도를 없었다고 밝혔다.

거래내역 공개여부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체에서 가능하였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소식지 등에 거래 여부가 공개되고 있었다.

한편,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는 조직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운영 조직의 설립 유형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공공전달체계는 정부관련기관과 복지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복지재단, 구청,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정부 혹은 지자체와 관련된 기관에서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본 연구에서는 정부관련기관이라고 명명하였다. 복지관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엄밀히 분류하면 비영리기관과 정부의 혼합형태로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의 재원부담 및 규제와 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전달체계로 보았다. 복지관을 다른 정부기관들과 나누어 살펴 본 이유는 지역통화운영 하는 복지관의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다르게 특징이 있었다. 먼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물품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었고, 전문인력이 상근자로 상주하고 있었으면, 마지막으로 지역통화 이용 대상 층이 비교적 사회소외계층이라는 대상적 특성이 있었다.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기존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NGO 단체에서 지역통화제도를 하나의 사업으로 도입한 경우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을 NGO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NGO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지역통화제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풀뿌리 단체라고 명명하였다. 22개의 단체 중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5곳 복지관 6곳, NGO는 6곳, 풀뿌리 단체는 5곳으로 나타났다.

조직 운영위원의 선출방식의 경우에는 조직의 설립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운영위원은 조직의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정부관련기관 중 구청, 복지관, 자원봉사센터와 NGO에서는 실질적인 운영위원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업의 담당자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 단체들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여기서 운영위원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들의 모임으로써 운영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 중 단체 A의 경우 운영위원들이 선출되며 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풀뿌리 단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단체들도 그 선출과정의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위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조직의 규모(회원수) 역시 파악이 안 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었다. 복지관이나 NGO의 경우 기존 회원들을 모두 회원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통화제도를 이용하는 회원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I의 경우 회원 통계가 존재하지만 명목상 회원을 900여명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단체 I의 운영자 10이 밝힌 실질적 회원들은 100여명 정도로 보고 있다. 운영자들의 인터뷰 결과 ‘활발한 활동’<sup>16</sup>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수는 각 단체마다 대략 30에서 60여명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활성화 방안의 경우 ‘발전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단체는 17곳, ‘확장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활성화 방안은 운영자들이 소속된 운영주체의 성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부관련기관에 소속된 운영자들은 당연히 가치 편향적이지 않고 주류경제체제에 순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도활성화를 접근하는 방식 역시 복지관을 제외한 정부와 관련된 단체의 경우, 확보된 회원이 없고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그 외 유형의 운영자들은 풀뿌리 단체, NGO, 복지관 소속인 경우 이미 단체의 회원의 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제도를 보편적으로 확장하기 보다는 소규모 시스템의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한다고

---

<sup>16</sup> 여기서 각 단체들의 운영자들이 생각하는 회원의 ‘활발한 활동’의 주관적 기준이 달랐는데, 설립 초기의 단체들의 경우 월 거래 1회 이상의 회원들을 ‘활발한 활동’의 기준으로 보았고, 단체 N이나 T의 경우 거래 수 보다는 월례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는 회원들의 수로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생각해볼 수 있다.

### 제 3 절 지역통화제도 인식 유형별 특성

앞서 1절에서 살펴본 인식 유형 별로 각각 그 제도설계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4-12>과 같다.

#### 1. 유형 1-‘이웃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유형 1에는 총 9개의 단체에서 10명의 운영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운영자9와 운영자25는 단체H 소속이었다. 10명의 운영자 중 운영자17과 운영자29가 속한 단체 P와 단체N은 10년 이상이 된 단체였고 그 외 8명은 시작한지 3년 이내에 있는 초기 단계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운영자 14가 속한 단체M과 운영자17이 속한 단체P를 제외하면 그 외 단체들은 모두 레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된 것처럼 레츠는 모두 국가화폐를 기본단위로 하고 타임달러는 시간이 기준이 된다.

화폐사용의 지리적 범위는 대부분 시 혹은 구 단위로 나타났다. 운영자 1, 6, 9, 14, 17, 25, 29가 속한 7개의 단체에서 밝히고 있는 화폐사용의 공식적인 지리적 범위는 시 또는 구 단위였고, 운영자3, 4, 13이 속한 3개의 단체에서는 지역통화의 거래가 각 기관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다.

마이너스 이자를 도입하는 곳은 운영자29가 속한 단체N이 유일했고,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두고 있는 곳은 4곳, 한도가 없는 곳은 3곳, 마이너스 계좌제도가 없는 곳 1곳, 그리고 단체N은 지역통화거래를 시작한지 아직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조사 당시 아직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유형 1에 속한 운영자들은 풀뿌리 단체의 소속인 운영자29를 제외하면 정부기관이 5곳, 복지관이 3곳으로 운영조직 유형이 모두 공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의 제도활성화 전략은 운영자29와 운영자 3, 4, 13은 제도의 확장 보다는 제도 내의 활성화를 발전적 전략을 선호했고, 나머지 운영자들은 모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을 선호했다. 특이한 점은 운영자 3, 4, 13와 같이 정부관련 기관 중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운영자들은 모두 발전적 제도활성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는 다른 단체와 다르게 복지관은 이미 참여자들이 복지관 이용자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활성화 보다는 제도 내의 활성화를 더 목표로 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관을 제외한 정부기관 단체는 모두 확장적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1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요약해보면 세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단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운영주체 중 정부기관은 모두 유형1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1의 운영자들의 제도활성화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복지관의 운영자들은 발전적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그 외 기관들은 모두 확장적 전략을 선호하였다.

## 2. 유형2 -‘대안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유형 2에는 총 5개의 단체에 소속된 7명의 운영자가 속해있다. 이 중 운영자26, 27, 28은 모두 단체N 소속이다. 7명의 운영자 중 운영자11과 운영자26, 27, 28이 속한 단체 J와 단체N은 각각 8년, 12년 이상 운영되어 온 단체였고 운영자7은 3년 이상 운영되어온 단체, 운영자8과19는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초기 단계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운영자 11이 속한 단체J를 제외하면 그 외 단체들은 모두 레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레츠는 모두

국가화폐를 기본단위로 하고 타임달러는 시간이 기준이 된다.

화폐사용의 지리적 범위는 모두 시 혹은 구 단위로 나타났다. 유형2의 운영자들이 속한 7개의 단체에서 밝히고 있는 화폐사용의 공식적인 지리적 범위는 시 또는 구 단위였다. 이 중 운영자19의 소속 단체만 서울에 위치해 있었다.

마이너스 이자를 도입하는 곳은 운영자26, 27, 28이 속한 단체N이 유일했고,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두고 있는 곳은 4곳, 한도가 없는 곳은 3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 2에 속한 운영자들은 비교적 오래된 단체들의 소속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풀뿌리 단체 혹은 NGO에 소속되어 있었다. 또한 유형2에 속한 모든 운영자들은 제도활성화 방안으로써 확장적 전략보다는 발전적 전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형 3-‘생활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유형 3에는 총 4개의 단체에서 4명의 운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운영자12가 속한 단체는 2007년, 운영자 16이 속한 단체는 2010년, 운영자 18과 22가 속한 단체는 각각 2008년에 설립되었다. 한편, 운영자18이 속한 단체는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아 2011년 공식적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중지하고 2012년 하반기에 새로운 지역통화제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운영자22가 속한 단체는 2010년 지역통화 사업을 중단하였다.

화폐사용의 지리적 범위는 모두 시 혹은 구 단위로 나타났다. 이 중 운영자16의 소속 단체만 경기도에 위치해 있고 나머지 운영자들이 속한 단체는 부산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마이너스 이자를 도입하는 곳은 없었고,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두고 있는 곳 역시 없었다.

한편, 유형 3에 속한 운영자들 역시 유형2와 비슷하게 모두



NGO혹은 풀뿌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형3에 속한 모든 운영자들은 제도활성화 방안으로써 확장적 전략보다는 발전적 전략을 선호하고 있었다.

유형3에서 나타나는 특성 역시 유형2와 유사하게 운영주체가 모두 풀뿌리 단체이고 또한 제도활성화 방안은 모두 발전적 방향을 선호한다.

#### 4. 유형 4-‘생태 공동체 지향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유형 4에는 총 4개의 단체에서 4명의 운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운영자2가 속한 단체는 1999년, 운영자 15와 21이 속한 단체는 2000년, 운영자 20의 단체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이 중 운영자2가 속한 운영자 단체B는 국내에서 가장 빨리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한 단체이지만 현재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2012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정립할 계획에 있다.

유형4의 운영자들의 소속 단체 중 3곳은 화폐사용의 지리적 범위는 중 시 혹은 구 단위로 나타났다. 이 중 단체B는 화폐사용의 범위를 지역적으로 범위가 없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마이너스 이자를 도입하는 곳은 운영자15가 속한 단체N, 그리고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는 운영자15, 20, 21의 소속단체에는 존재하였고, 운영자2가 속한 단체B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유형 4에 속한 운영자들 중 NGO혹은 풀뿌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형4에 속한 운영자들 중 3명은 제도활성화 방안으로써 확장적 전략보다는 발전적 전략을 선호했고, 운영자2는 확장적 전략을 선호했다.

<표 4-12> 각 유형의 제도설계요인 특성

P 표본	소속단체 ID	단체시작 년도	화폐설계방식				계좌관리방식	조직의 특성	제도활성화
			종류	단위설정	지리적 범위	(-) 이자	(-)¹⁷ 계좌한도	운영주체 유형	발전적/확장적 전략
유형 1 - ‘이웃공동체 지향형’									
운영자 1	A	2011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O	정부	확장적
운영자 3	C	2012	레츠	국가화폐	기관 내	X	O	복지관	발전적
운영자 4	D	2010	레츠	국가화폐	기관 내	X	X	복지관	발전적
운영자 6	V	2011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O	정부	확장적
운영자 9	H	2012	레츠	국가화폐	인천(구)	X	미정	정부	확장적
운영자 13	L	2008	레츠	국가화폐	기관 내	X	없음	복지관	발전적
운영자 14	M	2009	타임달러	시간	서울(구)	X	X	정부	확장적
운영자 17	P	1999	타임달러	시간	서울(구)	X	X	정부	확장적
운영자 25	H	2012	레츠	국가화폐	인천(구)	X	미정	정부	확장적
운영자 29	N	2000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O	O	풀뿌리	발전적
유형 2 - ‘대안공동체 지향형’									
운영자 7	F	2008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X	X	NGO	발전적
운영자 8	G	2011	레츠	국가화폐	인천(구)	X	O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11	J	2004	타임달러	시간	경상도(시)	X	X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19	R	2010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X	NGO	발전적
운영자 26	N	2000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O	O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27	N	2000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O	O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28	N	2000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O	O	풀뿌리	발전적

¹⁷ 단체 L과 E는 마이너스 계좌제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름	단체이름	시작 년도	화폐설계방식				계좌관리방식	운영조직의 특성	제도활성화
			종류	단위설정	지리적 범위	(-) 이자	(-) 계좌한도	운영주체 유형	발전적 전략/ 확장적 전략

유형 3 - '생활공동체 지향형'

운영자 12	K	2007	레츠	국가화폐	부산(구)	X	X	NGO	발전적
운영자 16	O	2010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X	X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18	Q	2008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X	NGO	발전적
운영자 22	U	2008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X	NGO	발전적

유형 4 - '생태공동체 지향형'

운영자 2	B	1999	레츠	국가화폐	전국	X	X	NGO	발전적
운영자 15	N	2000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O	O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20	S	2012	레츠	국가화폐	경기도(시)	X	O	풀뿌리	발전적
운영자 21	T	2000	레츠	국가화폐	대전(구)	X	O	풀뿌리	발전적

그 외

운영자 5	E	2010	레츠	국가화폐	기관 내	X	없음	복지관	발전적
운영자 23	A	2012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O	복지관	발전적
운영자 24	A	2012	레츠	국가화폐	서울(구)	X	O	복지관	발전적
운영자 10	I	2005	레츠	국가화폐	기관 내	O	O	복지관	발전적

## 제 4 절 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 1. 공공 정책으로써의 시사점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22개의 단체들의 설계요인을 각각 조사해본 결과 두 가지 한계점이 나타났다. 첫째 제도설계가 획일적이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도의 체계성이 부족한 점이다.

먼저 제도설계가 획일적인 것은 앞서 서론에서 North(2012)가 주장한 ‘경로의존성’과 ‘고착 효과’의 현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지역통화단체들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과천품앗이’와 ‘한밭레츠’를 모델로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두 단체의 설계제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결과 모든 단체들은 위 두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운영을 해나가고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설계요인이 변형되어 30개의 넘는 다양한 지역통화제도의 종류가 탄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레츠 시스템만 도입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경로의존성’과 이로 인한 ‘고착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두 성공사례들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지만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당 단체가 속한 지역적 특성과 그 대상의 특성임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도입되었기 때문에 각 단체들의 지역과 대상의 특성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획일적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정책으로써의 체계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Gilbert & Terrell(2005)는 제도적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적 행위 방침을 확정하는데 관련된 결정과 선택’으로 정의하는데, North(2000a)의 지역통화제도 설계요인의 틀로 살펴본 결과 국내 지역통화단체들은 체계적인 행위방침이 아직 확립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화제도는 왜 정책적 체계성이 부족할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존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해온 단체들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해온 단체들은 6가지 전통적 사회제도<sup>18</sup> 중 상호부조의 형태를 띠어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은 전문적인 보다는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이웃과 지역의 사회복지적 욕구를 수행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작고 비전문적이다(Gilbert & Terrell, 2005). 고로 하나의 공공 정책으로써의 엄격성과 체계성이 부족했을 수 있다. 또한, North(2000a)가 밝혔듯이 초기 지역통화제도를 시작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생태주의적, 무정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로써 이들의 중앙집권적인 정책에 대해 부정적 태도 역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위 두 가지 문제점은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통화제도가 공공 정책으로써 갖는 한계점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앞으로 하나의 정책으로써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시점에 각 단체들이 제도적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단체들은 목적과 인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에 맞는 제도의 설계방식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 2. 지역경제발전 관점 vs. 생태적지역발전 관점

앞서 제1절의 유형의 특성에서 나타나듯이 주류경제적 가치에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유형1과 유형3, 유형2와 유형4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구분은 2장 2절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Seyfang(2001)이 주장하는 지역경제발전 관점 과와 생태적지역발전 관점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유형1-이웃공동체 지향’(이하 이웃공동체 유형)과 ‘유형3-생활공동체 지향’(이하 생활공동체 유형)은 지역경제발전 관점으로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하는 것이고 ‘유형2-대안공동체 지향’(이하 대안공동체 유형)과 ‘유형4-생태공동체 지향’(이하 생태공동체 유형)은 생태적지역발전 관점의 범주에

---

<sup>18</sup> Gilbert & Terrell(2005)은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친족, 종교, 작업장, 시장, 상호부조, 정부와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속하는 것이다.

이웃공동체 유형과 생활공동체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반자본주의적 가치를 선호하지 않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유형에 속한 운영자들은 지역통화제도가 현대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인식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기능에 강화에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지역통화제도를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하여 지역내의 사회관계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이들은 주류경제학에 순응하면서 지역 내의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지역통화제도라는 도구로 지역사회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연계망 확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경제발전 관점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편 대안공동체 유형과 생태공동체 유형은 생태적지역발전 관점으로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한다. 이 두 유형에 속한 운영자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대안적인 삶의 시도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들은 대안적이고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가치와 생활양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태적지역발전 관점의 범주에 속한다. 이 두 유형에 속한 운영자들은 지역통화는 그 자체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꿈꾸지는 않지만 지역통화제도를 하나의 대안적 운동으로 인식하며 이들의 실천과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더 인식하게 하고 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 3. “운영주체의 특성”의 잠재적 설명변수로서의 가능성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의 운영중인 지역통화제도는 공공 정책으로써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요인 별 제도설계요인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주체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 인식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운영주체의 특성이 잠재적인 변수로써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운영주체에 따라 운영의 활성화 정도에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공공전달체계 중 정부관련 단체들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곳들이 다수였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역통화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생긴 곳들로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하지 않아 활성화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이른 단계라고 생각된다.

복지관의 경우 정부단체들에 비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는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적 인력이 상근직으로 관리하고 복지관이라는 물리적 장소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관은 대상층이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복지관의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소외계층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 이용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활성화는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NGO에서 지역통화를 운영하는 경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유형3의 단체Q 와 단체U 는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지한 상태였고 유형4의 단체B역시 명목상으로만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지역통화제도를 전업으로 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단체들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박용남, 200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형2와 유형3에 속한 풀뿌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역통화제도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통화제도의 풀뿌리 단체에서 거래가 활성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North, 2012; Seyfang & Longhurst, 2012; 박용남, 2009), 본 연구에서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모두 풀뿌리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영주체의 유형이 지역통화제도의 활성화에 잠재적 변수일 수도 있다. 지역통화제도가 풀뿌리 단체에서 더 활발히 진행되는 이유는 전달체계에서 비영리기관이 갖는 장점을 살펴보면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이기 때문일 것이다(강혜규 외, 2007; 구인회 외, 2010에서 재인용). 지역통화제도는 서비스의 목적이 거시적인 공통적 욕구의 해소가 아니라 그 지역적 욕구에 대응해야 하므로 공공부문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의 대응에 적절하지 못해 비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비영리조직은 정부기관보다 운용의 융통성이 크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표적집단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통화제도 운영에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영리기관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구인회 외, 2010).

이처럼 풀뿌리 단체들은 비영리기관으로써 비교적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한계점도 갖고 있다(구인회 외, 2010). 먼저, 정부기관에 비해서 재원마련에 한계를 드러낸다.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에서 재원조달은 주로 자발적, 자선적 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한계점으로 비영리기관의 특주주의 혹은 분파주의다. 즉,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보다는 대상자가 특정 인구집단에 한계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본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기관과 복지관으로 이루어진 공공부문의 운영자들은 보편적인 서비스로써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풀 뿌리단체들은 주로 특정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짓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지역통화제도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 재원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한 대상의 측면에서 폐쇄적이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4. 대안복지제도 프로그램으로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조사된 20 개의 단체 중 6 곳은 복지관에서 지역주민조직 사업으로써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사례들을 통해 지역통화제도의 대안적 복지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례들은 기존의 지역통화제도 운영단체들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우 다른 단체들과 다르게 대상자들 중 사회 소외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단체 C, D, E 의 경우 애초에 사업의 대상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었고 단체 I 의 경우도 사회소외계층이 주요 회원들이었다. 복지관에 소속된 운영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원들이 특성으로 인해 회원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거래를 활발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복지관에서는 전통적인 지역통화제도운영방식과 차이가 났다. 단체 C, D, E 의 경우 담당 운영자가 회원들의 통장을 일절 보관하고 거래는 모두 복지관 내에서만 이루어졌고, 단체 L 과 I 는 회원들이 레츠의 마이너스 계좌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이 개념을 없애고 컴퓨터 결제 혹은 복지관 적립카드를 도입했다. 이러다 보니 회원들끼리 자발적으로 거래를 활성화시켜 서로를 알아가 공동체를 부활시키려는 기존 지역통화제도의 특성은 찾기 힘들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역통화제도 단체들의 거래는 능력거래 혹은 소모임이 주된 프로그램인 반면에 복지관에서는 거래 품목은 물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서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장소와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수시로 와서 중고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일정한 회원과 거래장소와 인력이 있다 보니 복지관에서 거래활성화는 다른 단체들보다 빨리 활성화되는 특성을 보였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성화 된 대전 한발레츠가 창립한 첫해인 2000 년 1 년 총

거래건수는 287 건이었다. 이에 비해 2010 년 시작한 단체 E 는 2011 년 12 월 한달 거래 건수가 916 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회원들이 지역통화제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원들간의 신뢰로 거래가 활성화 되기보다는 다양한 중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로써 지역통화가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에서는 경우 회원, 장소, 인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복지관에서 지역통화제도 사업의 도입은 기존의 운영방식과 조금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안복지 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복지관 소속 운영자들은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존감이 더 낮고 사회적인 어울림이 더 낮아 공동체 형성에 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역통화제도 사업을 도입한 이후 이러한 점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통화를 시작하고 물품거래가 복지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지관에 오기 시작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과 같이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울리는 장소로 변했다. 이렇게 지역통화제도가 이웃과의 단절이 더 심한 곳에서 이웃을 하나 둘씩 알아가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다. 또한, 회원들간에 지속적인 모임이 형성이 되고 회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회원들끼리 여행을 가거나 함께 반찬을 만들거나 하는 등의 소모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봉사자, 운영위원모임 등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자원을 발굴해내고 참여자들의 역량강화, 자존감 회복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운영자들은 밝혔다. 기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혜적인 복지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지역통화제도를 통해 회원들이 스스로 재능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 향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통화제도는 대안복지 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제 5 장 결론

본 장에서는 먼저 연구를 요약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공한다.

###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에 현존하는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이 지역통화제도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해보고자 했고, 각 유형의 제도적 설계요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자들이 인식하는 지역통화제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인식 유형(‘이웃공동체 지향형’, ‘대안공동체 지향형’, ‘생활공동체 지향형’, ‘생태공동체 지향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유형인 ‘이웃공동체 지향형’의 운영자들은 현재 주류경제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붕괴되는 지역 공동체의 부활과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자존감 향상을 이끌어내는 제도로써 지역통화제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대안공동체 지향형’의 운영자들은 지역통화제도가 근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시도로써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제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세 번째 ‘생활공동체 지향형’은 주류적 경제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개인의 역량개발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써 인식하는 것이다. 네 번째 ‘생태 공동체 지향형’은 지역통화제도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써 생태적인 공동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써 인식하는 유형이다.

네 가지 유형은 Seyfang(2001)의 지역통화제도에 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웃공동체 지향형’과 ‘생활공동체 지향형’은 LED의 범주에 들어가고 ‘대안공동체 지향형’과 ‘생태공동체 지향형’은

SLD관점에 유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유형의 제도설계요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화폐설계방식과 계좌관리 방식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운영단체의 성격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형1에 속한 운영자들이 속한 단체의 운영주체는 주로 정부와 관련 단체였고 유형2, 유형3, 유형4에 운영자들은 대부분 풀뿌리 혹은 NGO 단체에 속해 있었다. 한편, 유형1의 운영자들은 제도적 활성화의 방법으로써 확장적 홍보전략을 선호하였고 그 외 유형의 운영자들은 발전적 홍보전략을 선호하였다. 전반적으로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요인 별 제도설계요인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운영주체의 설립 유형에 따라서 인식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른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운영주체의 특성이 잠재적인 변수로써 작용했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국의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가장 최근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지역통화제도에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의 현황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몇 년이 지난 단체 현황을 인용하는 실정이었다. 최근 들어 몇몇 단체들도 서로 연계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정리한 가장 최근의 국내 지역통화제도의 현황은 지역통화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국내 지역통화제도 연구 중 최초로 사례연구가 아닌 전국적에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기존 지역통화제도에 관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례연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한두 사례에만 중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전국 단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내의 지역통화제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의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의 인식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네 가지의 인식 유형을 바탕으로 단체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 전국에 지역통화운영단체들의 연합인 전국지역통화네트워크가 발족하였고 다양한 지역의 단체들이 교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운영자들의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교류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Q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Q 방법론이 연구자가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지역통화제도 운영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또한 그 동안 지역통화연구는 지역통화분야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소외되어왔는데, 이런 추세 속에서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Q방법론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 1.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Q 방법론의 진행과정에서의 한계점이다. Q 모집단의 포괄성과 대표성을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문 작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담고 있는 진술문

1은 모든 유형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내 사례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술문 작성시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김흥규(2008)는 진술문의 대상에 따라서 전문용어(jargon)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이 지역통화제도운영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시 운영자들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몇몇 참여자들은 진술문에 나타난 용어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43개 운영단체가 있지만 본 연구는 정보의 부족,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20개의 단체에 소속된 29명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국내 모든 지역통화운영자들의 인식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전국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합적인 경향 파악을 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각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각 유형에 속한 단체들의 특성, 운영방식, 성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2. 후속연구 제언

앞서 논의되었듯이 국내에 지역통화제도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해외에 다양한 지역통화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거의 소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의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사례들의 설립 배경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한계점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각 유형에 속한 단체들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별로 심층적으로 사례들을 연구하면 각 유형의 특성이

풍부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에 나타났듯이 지역통화제도의 운영주체의 유형에 따라 그 성격과 활성화 여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운영주체가 지역통화제도의 활성화에 잠재적 변수로써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런 점에서 후석 연구에서 운영단체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과 지역통화제도의 활성화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지관에서 지역통화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존 지역통화제도 단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왔고 대안복지 프로그램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감정기, 백종만, & 김찬우. (2005).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 강혜규, 김형용, 박세경, 최현수, 김은지, 최은영, 황덕순, 김보영, 박수지.(2007),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권인천. (200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김분한, 이경남, & 이훈희. (2010). Q방법론의 미래에 대한 한국 Q학자들의 인식유형. *주관성 연구*, 21, 19-34.
- 김순음.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금정.
- 김용득, & 강희설. (2008).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0(1), 29-51.
- 김용득, 이병곤, 조용식, 김해보, & 강찬호. (2004). *문예진흥을 위한 지역통화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기초연구-
- 김은하, & 박경하. (2011).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축: 기본소득제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탐색*. Paper presented at the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서울대학교.
- 김현수, & 원유미. (2000). *Q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형용. (1999).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연세대학교.
- 김흥규. (2008). *Q 방법론: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류은화. (2000). *국내 지역통화운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인천연대 '나눔'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계명대학교.
- 리에테르, 베. (1998). 탐욕과 희소성을 넘어서. *녹색평론*, 40(5-6).



- 마코토, 니. (2006).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 (이홍락, Trans.). 서울: 돈키호테.
- 박경수. (2006). *장애인복지 소비자주의 관점에 대한 사회보지사의 인식유형 연구*. 박사학위, 성균관대학교.
- 박상현. (2004). *21세기 지역통화의 패러다임*. 서울: 대운출판.
- 박용남. (2009).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 운동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10주년 자료집*.
- 보일, 데이비드. (2006). *행복한 돈 만들기* (손정숙, Trans.): 디오네.
- 서화숙. (2005). 행복한 실천. *우리 교육*.
- 신원식. (2002). 사회복지 정책분석에서 Q방법론의 활용. *지역복지정책*, 16.
- 샌델, 마이클. (2012).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 오택섭, & 최현철. (2004).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3 - 인자분석/Q방법론/MDS/생존분석/LISREL*. 서울: 나남출판.
- 요시히로, 아., & 루이, 이. (2002).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통화 입문* (전정근, Trans.): 아르케.
- 윤용택. (2005). *지역통화운동의 환경철학적 의의*. Paper presented at the 한국환경철학협회.
- 이창우. (2000). 지역품앗이운동 소개. 제 2 건국을 위한 지역품앗이운동.
- 전국지역통화네트워크. (2012).
- 조옥. (2012). *지역화폐 운동 대안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진상현. (2006). Q 방법론: 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로의 초대. *국토*, 302, 123-131.
- 천경희. (2006). *공동체화폐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경험과 소비자주의적 함의 연구*. 박사학위, 서울대학교, 서울.
- 천경희. (2008).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돈. In 이. 외 (Ed.), *열일곱가지 소비자이슈*: 교문사.
- 천경희. (2009). *공동체화폐의 역사와 현황*.

- 홍찬숙. (2009).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하위 정치'의 마키아벨리즘. *사회와 이론*(14), 213-241.
- Barry, J., & Proops, J. (2000). *Citizenship,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Research*: Aldershot: Edward Elgar.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New Delhi: Sage. (Translated from the German *Risikogesellschaft* published in 1986.
- Blanc, J. (2011). Classifying "CCs": Community, complementary and local currencies' types and gener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5.
- Cahn, E. (1997). The Co-production Imperative. *Social Policy*, 62.
- DeMeulenaere, S. (1998). An Overview of Parallel, Local and Community Currencies in Asia, Africa, from <http://ccdev.lets.net/overview.html>
- DETR. (1999). *A better quality of life: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nited Kingdom*. Eland House, Brassenden Place, London.
- Douthwaite, R. (1996). *Short Circuit: Strengthening Local Economies for Security in an Unstable World*. Tones: Green Books.
- Ellison, N. (1999). Beyond Universalism and Particularism: Rethinking Contemporary Welfare Theory. *Critical Social Policy*, 19(1).
- Fitzpatrick, T., & Cahill, M. (2002). The New Environment of Welfare. In T. Fitzpatrick & M. Cahill (Eds.), *Environment and Welfare: Towards a Green Social Policy*.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Fitzpatrick, T., & Caldwell, C. (2001). Towards a Theory of Ecosocial Welfare: Radical Reformism and Local Exchanges and Trading Systems (LETS). *Environmental Politics*, 10(2), 43-67. doi:

- Fitzpatrick, T., & Caldwell, C. (2001). Towards a Theory of Ecosocial Welfare: Radical Reformism and Local Exchanges and Trading Systems(LETS). *Environmental Politics*, 10(2), 43-67.
- Gilbert, N., & Terrell, P. (2009).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 Gorz, A. (1989). *Critique of Economic Reason*. London: Verso.
- Hirota, Y. (2011). What have Complementary Currencies in Japan really achieved? Revealing the hidden intentions of different initi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5.
- Hirst, P. (1994). *Associative Democracy*. London: Routledge.
- Johnson, S. (1998). *New Economics: A Gender Perspective*. London: NEF.
- Liesch, P. W., & Birch, D. (2000). Community-based LETSystems in Australia: Localised Barter in a Sophisticatd Western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4.
- Martignoni, J. (2012). A new approach to a typology of complementary curr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6(A).
- North, P. (2000a). *Complementary currencies and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roblems and how they might be overcome*. .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tockholm, Sweden.
- North, P. (2000b). Is there space for organisation from below within the UK government's action zones? A test of 'collaborative planning'. *Urban Studies*, 37.

- North, P. (2012). *Local Money: How to make it happen in your community*. UK: Transition Books.
- Offe, C. (1996). *Modernity and the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 Pacione, M. (1997).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as a response to the globalisation of capitalism. *Urban Studies*, 34, 1179-1199.
- Rifkin, J. (1995). *The End of Work*. New York: G.P. Putnam.
- Schroeder, R., Yoshihisa, M., & Marie, F. (2011). Community currency research: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5(A), 31-41.
- SEU. (2000).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A framework for Consultation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 Seyfang, G. (1994). *The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Audit*. University of East Anglia, Norwich UK.
- Seyfang, G. (2000). The euro, the pound and the shell in our pockets: rationales for complementary currencies in a global economy. *New Political Economy*, 5(2), 227-246.
- Seyfang, G. (2001). Community currencies: small change for a green econom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3.
- Seyfang, G., & Longhurst, N. (2012). MONEY, MONEY, MONEY? A SCOPING STUDY OF GRASSROOTS COMPLEMENTARY CURRENCIES FOR SUSTAINABILITY. *35 Working Paper 2012-02*.
- Thorne, L. (1996).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a case of re-embedding? *Environment and Planning* 28.
- Webler, T., Danielson, S., & Tuler, S. (2009). Using Q method to reveal social perspectives in environmental research. Greenfield MA: Soc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Downloaded from:

<http://www.seri-us.org/sites/default/files/Qprimer.pdf>

Williams, C. (1997).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s(LETS) in Australia: A New Tool for Commun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Currency Research*, 1.

Williams, C. C. (2002). The Social Economy and LETS. In T. Fitzpatrick & M. Cahill (Eds.), *Environment and Welfare*. New York: Palgrave Mcmillan.

# The Perception of Community Currencies in Korea

– Using Q methodology –

Joonmo Ka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North(2000a) argues that different political and social objectiv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success of the community currency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verse perception of ‘community currency’ among administrators of community currency groups in Korea. Also, the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design features of each perception categories.

In order to measure the subjective perceptions of 29 administrators from 22 active community currency groups, Q methodology was used. The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design features of each group.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there are four different types regarding the perception of community currency among administrators in Korea. First is the ‘neighborhood community’ type. Administrators in this type agree on the mainstream economic values and views community currency as a tool to revitalize the community and to empower local residents. The second is the ‘alternative community’ type. Those included in this type are against the

capitalistic ideas and views community currency as the means to resist the growing neoliberal ideas. The third type is the 'livelihood community' type. Administrators in this type agree with the capitalistic ideas; however they see community currency as a tool that can help one's daily life and develop one's livelihood capabilities. The last type is the 'ecological community' type. Those in this type believe community currency is the alternative of capitalism and a way to maintain an ecological community.

The design features of each perception types were not found. This might be because the community currency groups in Korea lack the proper foundation as a public policy, thus specific design elements could not be investigated.

**Keywords :** Ecosocial Welfare, Community Currency, Local Currency, Q Methodology

**Student Number :** 2009-22841